

제9기 동북아역사재단
역사 아카데미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실마리, '관계'

일시 2011.5.12(목)~6.30(목)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목 차

- 01 동아시아 속의 한국과 중국-고구려와 수의 전쟁을 중심으로
김택민
- 11 근대 한국과 러시아 관계-러시아인 세레진 사바찐의 하루
김영수
- 31 동아시아를 잇는 고리, 고구려
김현숙
- 43 조선 고종과 티베트 13대 달라이라마의 국가진로 선택
박장배
- 53 동아시아 속의 한·일 관계-근초고왕과 광개토왕시대를 중심으로
연민수
- 65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의거의 역사성
장석흥
- 77 일본과 동아시아-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남상구
- 97 세계화시대의 한·중 관계
오병수

동아시아 속의 한국과 중국

고구려와 수의 전쟁을 중심으로

° 김택민

동아시아 속의 한국과 중국-고구려와 수의 전쟁을 중심으로

김택민(고려대학교)

1. 한반도와 중원 및 북방세력 사이의 전쟁

저는 2005년 6월 11일 아침,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수백 번 침략한 나라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뼈아픈 과거사를 잊겠느냐” 고 하고서, 이어 “나는 이런 점을 우리 국방부장관에게도 늘 주지시키고 있다” 고 덧붙였다고 보도된 신문 기사를 읽었다.

저는 마침 중국의 자연재해, 대동란, 이민족의 침략전쟁 등을 정리하면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민족에 대해 공세적이었다기보다 수세적이었으며 중원왕조의 한국침략도 많지 않았다는 것, 중국이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려 온 데 비하면 한국은 오히려 외침을 덜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등을 확인하고 있던 터라, 대통령의 이 발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저는 그날 몇몇 지인들에게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역사상 한국을 수백 번 침략한 나라인가?” 하고 물었으나 그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 듯했다. 사실 필자도 어릴 적부터 “한국은 반도에 위치하여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다” 또는 “한국사는 외세의존적인 역사다” 라고 들어온 것 같다.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이같이 자기비하적인 역사인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으레 그러려니 하고 심드령하게 지나쳐온 국민들이나,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자기 성안에 안주해 온 역사학계 모두가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같다. 잘못된 역사인식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대외정책을 적절하게 수

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자학적인 역사인식이 그 동안 우리 국민정서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하니 머리가 무거워진다.

중국이 한국을 침략한 것은 한 무제 때 고조선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 한사군을 설치한 전쟁, 수 문제와 양제 때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패배하여 수나라 자체가 멸망한 전쟁, 그리고 당나라 태종과 고종 때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전쟁이 전부이다. 이밖에 중국의 삼국시대에서 오호십육국시대에 걸쳐 요동에 근거를 둔 세력들과 고구려가 자주 전쟁을 벌였지만 이는 서로 공방전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가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고려 때는 거란이 세 차례 침공한 일이 있고, 여진의 위협을 받은 일이 있으며, 몽골에게 29년 동안 침략을 받은 일이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침략까지 중국의 그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 초원시대에서 출현한 유목정권이 지중원에서 출현한 한족정권이 아니므로, 다 같이 중국의 침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당시 중원은 송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이라면 당연히 송나라를 가리킨다. 그 송나라도 이들 유목민족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 처지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만주족의 청나라가 침입하여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켰지만, 이 때는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기 전이었으므로, 이것도 중국의 침략은 아니다. 당시 중원은 명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이라면 당연히 명나라를 가리킨다. 명나라도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침략을 받다가 농민반란군에 망했고, 그 뒤에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해서 지배했다. 청나라는 중원을 정복한 뒤 만주, 몽고, 티베트와 신강 등 서역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지금 중국은 외몽고를 제외하고 청나라의 영토를 그대로 계승했다. 이런 점 때문에 만주에서 일어난 요, 금, 청을 중국 왕조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 지역이 중국 영토로 편입된 것은 겨우 2백여 년 전일 뿐이다. 그 전까지는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몽고족의 대부분은 그 때나 지금이나 중국인이 아니다.

동아시아 전쟁사 또는 국제관계사에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다. 유목민족들의 중국침략은 장기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데 비하여 이들의 한반도 침략은 대개 위협에 그쳤거나 단기간에 끝났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거란족의 중국침략전쟁의 경우 930년대부터 시작되어 1004년 ‘전연의 맹약’으로 강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무려 70년 동안 진행되어 화북지방을 초토화시켰으나 고려에 대한 세 번의 침공은 두 번째

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 없이 끝났다. 여진족의 금나라도 1120년부터 1233년까지 거의 백 년 이상 침략전쟁을 벌여 중국 전역을 황폐화시켰고 백 년 가까이 화북지방을 지배했다. 그러나 고려는 여진족의 위협을 받기는 했지만 침공을 받지는 않았다. 몽고족만은 예외적으로 고려를 29년 동안이나 침략하여 전국을 초토화시켰으나 그래도 고려 왕조의 명맥은 유지되었다. 그렇지만 몽고족은 중국에 대해서도 70년간 침략전쟁을 벌였으며, 당시 남송정권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완전히 정복하여 백 년 가까이 지배했다. 만주족의 중국 침략전쟁은 1620년 요동을 공략하기 시작해서 중국을 완전히 평정하는 1683년까지 60년 이상 계속되었으며 참혹한 살육을 동반하였다. 만주족이 조선을 침략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두 번 다 몇 개월 만에 끝났다.

중국을 이들 4개 민족의 침략전쟁 말고도 3세기 초부터 6세기 말까지 300년 가까이 다섯 유목민족들의 정권 밑에서 분탕질을 당한 아픈 역사도 경험했다. 이밖에도 한나라 때는 흉노족의 침략, 당나라 때는 토번과 위구르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했다.

한족의 중원왕조가 한반도를 침공한 것은 한 무제 때, 수 문제와 양제 때, 그리고 당나라 태종과 고종 때의 세 번이라고 했는데, 이는 한족이 중원을 통일하고 그 힘으로 주변을 압도한 때이다. 그렇지만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한과 당 때는 중국 쪽이 승리했지만 수 때는 중국 쪽이 패배했다. 중국 쪽이 패배한 전쟁을 다시 음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2. 수의 고구려 침공과 패배

수 문제는 고구려를 침공하기에 앞서 고구려 평원왕에게 국서를 보냈는데, 그 글에서 “왕은 요하[遼水]의 폭이 양자강과 어떠하며, 고구려의 인구(人衆)가 진국(陳國)과 어떠하다고 보고 있소?” 라고 물었다. 수나라는 장강 같은 장애물도 쉽게 넘어 진(陳)나라를 멸망시켰으니 그보다 훨씬 좁은 요하 정도는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진나라의 인구는 고구려의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고구려가 무엇을 믿고 굴복하지 않느냐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수나라의 인구는 609년(양제 대업 5년)에 호 8,907,564, 구 46,019,956이고, 영토는 동서 9,300리, 남북 14,815리로 되어 있다. 수나라의 국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고 믿을만한 기록이 남아 있는 반면 고구려의 그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몇 개의 사료가 남아 있을 뿐이다. 우선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접수한 호수가 697,000이

라고 한 기사가 있다. 그렇지만 이는 믿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삼국유사』에 “고구려의 전성기 때 호수는 210,508이다”라는 기록이 비교적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호당 구수를 5인으로 본다면 당시 고구려의 인구는 100만 전후였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인구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양국의 국력을 비교하면, 고구려의 국력은 수의 그것의 21/891(1/42.42)에 불과하다. 수 양제가 “고구려의 무리는 우리나라 1郡에도 당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 차이 때문이겠지만 수의 세금은 가볍고 고구려의 그것은 무거웠다.

당시 수나라는 돌궐을 제압한 뒤, 이어서 토곡혼의 굴복을 받아내고, 마침내 남쪽의 진을 멸망시켜 280년 만에 이른바 천하통일을 이룩한 터였다. 그 때 돌궐은 전사가 40만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초원 일대를 아우른 강대국이었다. 토곡혼도 수의 집요한 공격에 따라 자체 분열함으로써 굴복하기는 했지만 쉽지 않은 상대였다. 남조의 마지막 왕조 진도 비록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호가 60만에 달하여 고구려의 3배에 이르고 양자강이라는 험난한 장애가 가로막고 있었다. 이 같은 강적들을 차례로 굴복시키거나 정복한 수 문제로서 고구려는 안중에도 없는 하찮은 소국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런 소국이 관작을 받아가긴 했으나 매년 조공을 바치지 않고, 사신을 감금하고 병기기술자를 빼돌리고 사신을 파견하여 염탐하고, 말갈을 앞장세워 변경을 침범하고 거란이 수와 통교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전혀 굴복감이 없이 적대적인 자세를 보였으므로, 공격하여 굴복시키고자 했던 것은 당연했을 것 같다. 더구나 계속된 전쟁에서 공을 세워 은상(恩賞)을 받는 데 익숙해 있던 관료들이나 장수들은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 치세 말기 말에 국가가 은성하여 수나라 조야가 모두 요동[고구려]을 도모할 뜻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나라 조야의 분위기가 이러했으므로 수의 고구려 침공은 필연이었다. 그리하여 수는 598년 수군과 육군 30만 명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수나라 군대는 열 명 중 여덟아홉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참담하게 패배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세한 국력을 가진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왜 이처럼 패배하게 되었는가? 사서에는 실제 전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장마, 운송 지연으로 인한 군량미 결핍, 그리고 질병 때문에 퇴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사실로 보이는데, 그것은 전투부대의 편성과 출정의 진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나라는 598년 2월 고구려왕이 말갈군 만여 기를 이끌고 요서를 공격하자 즉시 침공 결정을 내리고 전투부대의 사령부를 구성했다. 그런데 전진기지인 임유관(臨渝關)을 넘은 때는 6월이다. 6월은 만주 서남부가 우기로 접어드는 때인 만큼 전투 기피 시기이다. 더구나 수군은 요하의 하류를 통과해서 진공해야 하는데 이 지방은 원래 소택지가 많은데다 장마가 들면 요하가 범람하여 진창으로 변하므로 군대가 진격하기 어렵고 군수물자를 수송할 수레의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다. 따라서 수나라 군대가 6월에야 이 지방을 통과하게 되어서는 고구려군을 만나기 전에 이미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나라 위정자나 행군의 지휘관들도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리 없을 터이다. 따라서 만약 부득이 6월에야 침공 준비를 마쳤다면 일단 진공을 멈추고 다음해 봄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공을 감행한 것은 일단 문제를 비롯한 수나라 위정자들 및 전투부대 사령부가 창업 이후의 계속된 승전에 고무되어 있었고, 고구려의 국력을 과소평가하여 고구려를 경시했기 때문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수나라 군대는 6월이 되어서 겨우 전진기지를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량미 운반이 이어지지 못해 군중에 식량이 부족했다고 한다. 아마도 2월에 갑자기 침공이 결정 되었으므로 군량미를 조달하는 계획이 불충분했던 것 같다. 30만 명이 필요로 하는 군량미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고 이를 생산지의 창고에서 전진기지까지 운송하는 데도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적기에 군량미가 보급되지 못함으로써 30만 대군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조건 중의 하나는 남쪽 농경 왕조가 북방 유목민족을 공격할 때 요구되는 식량과 군수물자 운반을 위한 과다한 노동력이다. 그러나 방어하는 쪽은 공격자와 달리 이 같은 노동력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므로 비교적 적은 군대와 약한 국력을 가지고도 방어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제의 1차 침공 때의 군량미 운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사서에 따르면 양제가 고구려 침공을 결심한 것은 그의 즉위 3년째 되는 해인 607년 8월 돌궐의 계민가한(啓民可汗)의 천막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고구려의 사자를 발견하고 나서라고 한다. 당시 계민가한은 수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가 고구려 사자를 받아들인 처사에 대해 수의 위정자들은 대단히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이때문이겠지만 배구(裴矩)는 고구려의 땅이 원래 한의 군현이었다는 점을 들어 고구려 왕에게 입조를 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궐을 이끌고 즉시 죽이겠다고 위협하라고 권하

였고, 양제가 그대로 따랐으나 고구려왕이 이를 듣지 않으므로 고구려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598년 고구려 침공이 있을 당시 양제는 30세의 장부로 그의 아버지와 동생에 의한 고구려 침공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사실을 목도한 바였고, 또한 장차 태자 용(勇)을 제거하고 스스로 제위를 계승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정복하리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당시 수나라의 전성한 부강함을 믿고 진시황제나 한 무제를 숭상하고 모방하려 했다고 하므로 유일하게 굴복하지 않고 있는 고구려에 대한 공격은 아마도 즉위 초부터 결심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양제는 598년 침공의 실패가 준비 불충분과 사령관의 미숙 때문으로 보고 철저히 준비하고 스스로 진두지휘해서 완전하고도 멋진 승리를 얻고 싶었던 같다. 그 때문이었지만 607년 계민가한의 천막에서 고구려 사자를 만난 후 곧 전쟁 준비에 착수했다.

4년 남짓 기본적인 전쟁 준비를 한 뒤 611년(대업 7년) 2월에 침공을 위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를 전후로 침공을 위한 준비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7월에는 강희이남의 민부(民夫)와 선박을 징발하여 여양창과 낙구창의 곡식을 운하를 통하여 탁군으로 운반하도록 하니 선박의 대열이 천여 리에 이어졌고, 병기와 갑옷 및 공성 도구를 지고 오고가는 사람이 항상 수십만 명에 이르러 밤낮으로 도로를 가득 채웠고 죽은 자가 서로 베고 누워 악취가 길에 가득해서 천하가 시끄러웠다. 게다가 관리들이 탐욕스러워 이를 기회로 수탈하니 백성들은 곤궁하고 재력이 모두 고갈되어 가만히 있으면 얼어죽거나 굶어죽을 수밖에 없어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니 약탈로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서로 모여 군도가 되기 시작하였다.

중원왕조의 국력은 주변 국가의 그것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다. 그러나 그 국력을 이용하여 주변 국가를 공격하려 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군대로 동원되는 인원, 군수물자의 운반을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인원과 우마, 군수물자와 선박이나 수레를 제작하기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인원이 엄청난데, 장정들과 우마가 징발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 중원의 풍요로움도 사라지게 된다. 농경지는 황무지로 변하게 되어 수확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데도 군수물자와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 세금 징수는 더욱 가혹하게 된다. 또한 중원은 원래 평시에도 재난이 많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는 곳이다. 그런데 전쟁 기간에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정부가 구제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확대되기 마련이다. 수 양제가 고구려를 침공을 위해 조서를 발표한 611년에도 7월부터 장마가 들기 시작하여 황하 유역 30개 군이 홍수피해를 입어, 기근이 들고 곡물가가 폭등하여 심한 곳은 평소 가격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고구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기도 전에 이미 반란의 도화선이 당겨지기 시작하였다. 황하 하류에 있는 장백산에서 왕박(王薄)이란 자가 무리를 모아 떠돌아다니며 약탈하면서 스스로 세상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의 ‘지세랑(知世郎)’이라 칭하고 공연히 고구려 침공 전쟁에 끌려가서 개죽음하지 말자는 뜻의 ‘무향요동랑사가(無向遼東浪死歌)’를 지어 부르며 반란을 일으켰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이 전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이렇듯 대동란의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으나 완전하고 멋진 승리를 꿈꾸고 있던 양제에게 이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다만 그가 태사령을 지낸 유질(庾質)에게 “고구려의 무리는 우리나라 군 한 개의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짐이 이 거대한 군대로 그들을 정벌하려 한다. 경은 정복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것을 보면 그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동생이 정복에 실패한 고구려를 상대로 멋진 승리를 거두기만 한다면 좀도둑의 무리들은 사라질 것이고, 다른 내부의 여러 문제들도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을 터였다.

1차 세계대전 이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는 이 전쟁은 612년 정월 壬午에 출정의 명령이 내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전투부대는 좌우 각각 12군으로 모두 24군으로 편성되었으며 병력의 총수는 1,133,800인데, 200만으로 불렀고, 군량미 운반자는 그 배였다. 황제가 친히 전군을 지휘했는데, 각 군에는 대장군 1인과 각급 지휘관으로 구성되었다. 각 군에는 수항사자(受降使者) 1인을 배치하여 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황제의 명을 받들어 포로를 위무하도록 했다. 양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복한 적을 위무하여 패자에게도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군주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같다. 또한 진군하고 멈추는 것과 병영을 세우는 것 모두 절차와 격식을 정했다. 매일 1군씩 출발하여 40일에 걸쳐 출발을 마쳤는데, 정기가 960리에 달했다. 황제의 본영은 중앙정부가 모두 집결해 있어 6군으로 나누어 뒤따라 출발했는데 80리에 달했다. 史家는 이 같이 성대한 행군대열은 역사 이래 없었다고 쓰고 있지만, 아마도 그 후로도 이 같은 행군대열은 없었을 것이다. 위풍당당하게 진군하여 멋진 승리를 이루어 역사상 가장 위대

한 인물이 되고 싶은 양제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행군대열이었다.

3월에 양제는 행군대열을 이끌고 요하에 이르러 진을 쳤으나 고구려 군의 저항으로 건널 수 없었다. 두 번이나 부교를 설치한 끝에 어렵게 요하를 건너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양제는 요하를 건넌 뒤 이를 기념하여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5월이 되어 모든 장수들이 동쪽으로 진격하려 할 때 양제는 장수들에게 경계했다. “이번 전쟁은 민을 위로하고 죄인을 토벌하기 위한 것이지 공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장수들이 혹 짐의 뜻을 알지 못하여 가벼운 군대로 엄습하여 고립된 군대로 홀로 싸우는 것은 일신의 명성을 세워 공훈과 상급을 노리는 것이지 대군의 공격법[征行法]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세 갈래 길로 나누어 진군하니 공격할 곳이 있으면 서로 반드시 서로 알게 할 것이고 가볍게 홀로 진군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군대의 진퇴는 반드시 짐에게 아뢰고 난 뒤 지시를 기다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령은 전적으로 이 전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며, 누구도 그와 더불어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함이었다.

그렇지만 양제의 작전 지휘 아래 전개된 요동성 공격은 실패했다. 요동성의 고구려군은 수의 대군과 전투가 불리하게 되자 성을 지키는 작전으로 나왔다. 양제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을 명하고, 또한 고구려 군이 항복하면 마땅히 위무하여 받아들이되 병사들을 함부로 풀어 놓아 약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그러자 요동성이 함락되려고 하면 성 안의 사람들은 문득 항복을 청하는데, 여러 장수들은 황제의 뜻을 어길 수 없어 감히 그 기회에 대처하지 못하고 먼저 달려가 아뢰게 하였다. 그러나 답이 올 때면 성안에서는 방어 태세를 갖추고 나와 저항하였다. 이러기를 세 번이나 반복했지만 양제는 깨닫지 못하였고,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6월이 되어 양제는 장수들을 죽음으로 위협하여 공격을 독려했지만 고구려의 모든 성들은 각각 더욱 견고하게 지켰으므로 함락되지 않았다. 또 해로로 공격한 래호아(來護兒)의 수군도 대패해서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 이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도 1달 남짓밖에는 남지 않았다. 음력 8월이 되면 이 지역은 곧 추위가 밀려오기 때문에 철군을 서둘러야 한다. 이 시점에서 급공 외에 양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없었다. 함락되지 않은 성들을 그대로 둔 채 평양을 직공하는 전략을 쓰기로 했다. 직공부대는 9군으로 편성해서 우문술 등의 지휘 아래 각각 다른 길로 진격해서 압록강 서쪽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각 군의 병사들은 100일분의 식량과 병기 등을 지급받았는데, 중량이 개인당 3석(1석;26.4kg) 이상이었으므로 짊어질 수 없었다. “식량을 버리는

자는 참수하겠다” 고 군중에 승을 내렸지만 군사들은 천막 밑을 파고 묻었으므로 행군을 시작하자 곧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거짓 항복하며 수군의 진영을 찾아와서 수나라 군대의 굶주린 기색을 간파한 고구려군의 사령관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를 피곤케 하기 위해 일부로 패한 척 도망하면서 유인했다. 수나라 군이 평양 가까이까지 진격했을 때 다시 거짓 항복했고, 이에 따라 귀환하는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반쯤 건널 때 뒤에서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수나라 군대는 장군 신세웅(辛世雄)이 전사하는 등 괴멸했다. 수나라 군대의 9군이 처음 요하를 건널 때는 305,000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귀환했을 때는 2700명만 남았다.

다음해 정월 양제는 천하의 병을 징발하여 탁군(涿郡)에 집합시키라고 명했다. 그리고 요동으로 향해 4월에는 요하를 넘었다. 그러나 이미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게다가 예부상서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철수했다. 다음 해에도 양제는 고구려 공격을 위해 요동으로 떠났으나 징발한 병사들이 모이지 않으므로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항복을 청하고 망명해 온 곡사정(斛斯政)을 송환한 것을 계기로 철수했다. 이 후에도 양제는 고구려 침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나 강도로 갔다가 피살되고 말았다.

근대 한국과 러시아 관계

러시아인 세레진 사바찐의 하루

° 김 영 수

근대 한국과 러시아 관계 - 러시아인 세레진 사바찐의 하루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진실과 거짓 사이

을미사변이란 1895년 10월 8일 새벽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가 지휘하는 폭도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암살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기존 일본에서 야마베(山邊健太郎)와 박종근은 일본공사 미우라가 사건을 주도하여 일본군인, 외교관, 영사관, 경찰, 대륙낭인 등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실증했다.¹⁾ 하지만 여전히 야마베와 박종근도 정작 을미사변 당일 사건의 추이를 상세하게 연구하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을미사변에 관한 기존 미우라 주도설을 뛰어넘어 일본측 배후에 관한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었다. 또한 을미사변의 전체적인 구도 및 사건 현장의 모습 등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²⁾ 그렇지만 한국학계는 러시아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을미사변 당일 활발히 대응한 러시아공사관의 움직임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다.

러시아에서는 김려호와 박벨라가 을미사변의 목격자 세레진-사바찐(С е р е д и н - С а б а т и н А. И.)의 증언과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을미사변 당일의 상황을 조명했다. 두 사람은 을미사변 관련 러시아측 사료를 최초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큰 의

*필자는 그동안 을미사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08 “Two Perspectives on the 1895 Assassination of Queen Min”, Korea Journal, Vol. 48-2 ; 「을미사변, 그 하루의 기록 : 대원군의 침묵과 명성황후암살의 배후」, 『이화사학연구』, 39집, 2009 ; 「세레진 사바찐의 하루 : 을미사변에 관한 기억과 선택」, 『역사비평』, 91, 2010

1) 山邊健太郎, 『日韓併合小史』, 東京: 岩波書店, 1966, 119-124쪽; 朴宗根, 『日清戰爭と朝鮮』, 東京: 青木書店, 1982, 232-247쪽. 국내에서 일본학계의 연구성과 소개는 다음을 참조. 서민교, 「일본에서의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연구와 과제」, 『사총』, 59호, 2004

2) 최문형, 「서설」, 『명성황후 시해사건』, 1992, 6, 26쪽; 강창일, 「三浦梧樓公使와 민비시해사건」, 『명성황후 시해사건』, 1992, 31, 67쪽; 이민원, 「민비시해의 배경과 구도」, 『명성황후 시해사건』, 1992, 70쪽; 이민원, 『명성황후시해와 아관파천』, 2002, 국학자료원, 57-65쪽; 신국주, 「명성황후살해에 대한 재평가」, 『명성황후시해사건과 아관파천기의 국제관계』, 1998, 53쪽

미를 갖는다.³⁾ 하지만 김려호와 박벨라는 세레진-사바찐(이하 사바찐)의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사료비판에 근거한 본격적인 자료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왜 사바찐이 건청궁 자객을 이끌었던 오카모토의 이름을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가를 주목하지 못했다.

기존 국내외 학계는 정작 을미사변 당일 어느 장소에서 무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꼼꼼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을미사변 관련 기초적인 사실이 부정확하다. 여전히 을미사변의 무대인 건청궁을 비롯한 공간 및 사건의 구성을 위한 시간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다. 즉 건청궁 소재 건물의 위치, 왕과 왕비의 소재, 왕비의 암살과정, 일본군대와 일본자객의 행적, 훈련대와 시위대의 활동 등이다.

그 배경에는 첫째 기존연구는 을미사변의 현장인 경복궁 내부 건청궁 부속 건물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현장을 묘사하는데 많은 오류를 범했다. 현장을 복원하기 위해서 필자는 2007년 복원된 건청궁의 건물을 답사했다. 그리고 필자는 우선 기존에 발굴되지 않았던 사바찐이 작성한 궁궐 지도, 1907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복궁 지도 ‘북궐도형’, 우치다(内田定槌)영사가 외무차관 하라(原敬)에게 보낸 첨부 지도 등을 이용하여 사건의 위치를 규명할 것이다.

둘째 기존연구는 을미사변과 관련된 회고록, 증언, 보고서 등을 다양하게 이용했지만 을미사변을 가장 상세히 기록한 목격자 사바찐의 증언과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당시 사바찐은 을미사변 당일 현장에서 매 시간마다 사건의 추이를 확인했고, 새벽 5시가 넘어서는 15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했다. 그래서 그 어떤 증언과 보고서 보다 사바찐의 기록은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필자는 사바찐의 증언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을미사변 당일을 복원할 것이다.

그런데 사바찐의 증언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바찐은 당일 사건을 둘러싼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К.И. Вебер)와 즈프(芝罘) 주재 러시아부영사 껌첸코(А.Н. Тимченко-Островерхов)는 사바찐에게 을미사변에 가담한 일본인의 이름을 강하게 추궁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바찐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자 사바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3) 김 رخ오. 「Гибел королевы Мин(명성황후 암살)」 『Коре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к восьмидеся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рофессора М. Н. Пака(조선)』, М. 1998. СС.127-129; Пак В.В. 『Росс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и Корея(러시아의 외교와 조선)』, М. 2002. СС.160-161

따라서 필자는 사바찐이 을미사변 당일 자신의 증언과 보고서에게 무엇을 은폐하려고 했는가를 추적할 것이다.⁴⁾

1. 10월 8일 새벽 4시 : 일본군대와 훈련대의 경복궁 포위

새벽 4시 사바찐은 시위대(侍衛隊) 1대대장 참령(參領) 이학균(李學均)의 다급한 소리에 잠을 깬다. 평상복을 입고 잠을 청했기 때문에 사바찐은 바로 일어났고, 옆방에 있던 다이와 함께 이학균에게 상황을 물어보았다. 이학균은 대략 200명의 훈련대가 4-5명의 일본 교관의 지휘에 따라 대궐 북동쪽 대문인 춘생문(春生門)을 둘러쌌고, 30명의 일본 군복을 입은 사람을 포함한 대략 50-60명 일본인이 북서쪽 대문인 추성문(秋成門) 성벽에 숨었다고 알려주었다.

다이 장군이 성벽을 살펴보기 위해서 함께 가자고 사바찐과 이학균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이학균은 이미 훈련대연대장(訓練隊聯隊長) 부령(副領) 홍계훈(洪啓薰)과 함께 춘생문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고종에게 긴급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다이와 헤어졌다. 그런데 고종에게 보다 정확한 정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학균은 북쪽의 작은 암문(暗門) 계무문(癸武門)으로 향했다. 이학균은 망원경을 통해서 북서쪽 성벽을 따라 움직이는 약 12명의 그림자를 확인하자 바로 고종이 거주하는 장안당(長安堂)으로 달려갔다. 이학균을 뒤로하고 사바찐은 다이와 함께 대궐의 당직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적어도 6-7명의 장교와 2명의 중령이 반드시 근무해야 했는데 사바찐과 다이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사실 전날 사바찐은 평소와 같이 저녁 7시 경복궁으로 출근했다. 1894년 일본군대의 '7.23경복궁점령사건' 이후 고종은 사실상 일본의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서 신변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러시아공사 베베르(К.И. Вебер), 미국공사 실(John M.B. Sill), 미국인 고문관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e)의 조언에 따라 장군 다이(W.M. Dye), 대령 닌스테드(F.J.H. Nienstead), 건축사 사바찐(А. И. Середин-Сабатин)⁵⁾ 등을 일본인들

4) АВПРИ. Ф.150. Оп.493. Д.6. Л.12106, 12906 즈프(芝罘)는 산둥반도 끝 항구도시였다. 아관파천 직후 전신선이 불통되자 고종은 인편을 통해 즈프주재 러시아영사관에 편지를 보냈고, 러일전쟁 직전 고종이 한국의 중립화를 선언한 지역도 바로 즈프주재 프랑스영사관이였다.

5) Афанасий Иванович Середин-Сабатин(蘇眉退, 薩巴丁, 薩巴珍, 薩巴玲)

의 활동을 감시하도록 경복궁에 상주시켰다. 따라서 경복궁에는 항상 두 명의 외국인이 체류했고 사바핀도 1894년 9월부터 경복궁에 1주일에 4일씩 저녁에 출근하여 아침에 퇴근했다.

사바핀은 1860년 우크라이나 동북쪽에 위치한 도시 폴타바(Полтава)에서 영락한 지방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스위스계 러시아인 사바핀은 러시아에서 항해학교를 다녔으며 전문분야는 조타수였다. 한국 외부 고문관인 뮐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는 1883년 1월 출장차 상해에 머물렀는데, 상해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해관에 취직할 것을 뮐렌도르프에게 요청했다. 그 당시 뮐렌도르프와 친분이 있는 상해주재 오스트리아 총영사 하스(Hass)는 사바핀을 추천했다. 그 후 사바핀은 한국 해관의 관리 명단에 포함되었다.

상해에 머물면서 건축분야까지 습득한 사바핀은 1883년 9월 인천을 통해서 입국했고, ‘영조교사(營造敎士)’라는 직명으로 한국정부와 고용 약정을 체결했다. 인천에 도착하여 왕궁의 도면을 작성한 사바핀은 벽돌을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불연성의 이영지붕 설비안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실행이 어려워지자, 사바핀은 인천해관에 근무하게 되었다. 1884년 사바핀은 인천해관원 소속 외국인관료 7명 중 세 번째 직위인 ‘토목사’로 임명되었고, 그 후 약 1년 동안 15-16명의 한국인을 인솔하여 부두축조공사를 직접 지휘했다.

1888년 5월 사바핀은 경복궁 내부 건청궁의 관문각(觀文閣) 공사의 경리일체와 지휘감독을 맡기로 한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궁궐에 지은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관문각은 서양 문명을 수용하겠다는 고종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건물이었다. 관문각은 1888년 2월 공사가 시작되었고, 1892년 공사가 완료되었다.

공사의 과정에서 1891년 사바핀은 그를 보조하는 한국인 현응택(玄應澤)과 부실공사 책임 및 공사비 운영을 둘러싼 심각한 불화에 빠졌다. 사바핀은 1891년 9월 사직을 결심하고 누수에 따른 공사 하자의 책임을 가리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사바핀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하면서 하자보수공사를 명령하였고, 사바핀은 1892년 2월 수리를 위한 보관서류를 작성하고 4월에는 자재와 인부도 모두 조치하여 관문각을 보수했다. 관문각 공사가 마무리되자 고종은 “고생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으며 그르침도 어긋남도 없었다”며 1893년 10월 사바핀을 한국 해관에 복귀시켰다. 이러한 신뢰와 인연 때문에 사바핀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고종을 보호하는 외국인 대궐수비대로 한국정부에 근무할 수 있었다.

이날 경복궁으로 출근하는 도중 사바찐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한 중국인을 만났다. 중국인은 이날 밤에는 절대로 궁궐에 출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실 이 중국인은 이날 아침에 퇴근한 사바찐을 찾아와서 오늘 밤에 경복궁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궁궐 출근을 만류하는 중국인의 설명을 통해서 사바찐은 어떤 음모가 꾸며져서 바로 오늘밤 실행될지도 모르며, 한국군대인 훈련대가 음모의 중심세력이라고 직감했다. 왜냐하면 7일 0시에서 2시까지 일본장교에 의한 교육을 받은 훈련대 병사가 궁궐 앞에서 훈련대의 해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불길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사바찐은 7시 30분 경복궁에 출근했다. 사바찐은 대체로 활달하고 정력적이며 감정적인 성격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사바찐은 자신의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올 불확실한 위험을 피하지 않았다.

이날 대궐에 출근한 사바찐은 음모의 징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궁궐은 평상시처럼 조용했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궁궐의 주변에는 보초만 남았다. 한 밤중이 되어서 사바찐은 다이와 닌스테드와 함께 체류하는 서양인 숙소 협길당(協吉堂)에 들어갔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사바찐은 평상복을 벗지 않고 잠을 청했다.

새벽 4시 30분 사바찐과 다이는 당직실을 뒤로하고 북서쪽 추성문으로 도착했다. 이 날은 달빛이 매우 선명했기 때문에 그곳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사바찐은 추성문의 넓은 틈을 통해서 대문 바로 앞에 최소한 50명 이상의 일본 병사가 정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본 병사는 부동자세를 취하면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다. 잠시후 일본군대는 사바찐과 다이의 발소리와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 자신들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곧바로 일본 군대는 2열로 정렬하면서 추성문 옆쪽 성벽에 바짝 붙었다. 사바찐과 다이는 더 이상 현장의 변동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북동쪽 춘생문으로 향했다. 사바찐은 그곳에서 약 300명 정도의 훈련대 병사를 목격할 수 있었다. 사바찐은 한국인 중 한명이 춘생문에 다가와서 대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바찐은 춘생문을 둘러싼 병사가 훈련대의 주력 병력이라고 판단하였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서둘러 당직실로 향했다.

다이와 사바찐은 대책 마련에 고심했지만 방어 조치를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시위대 2대대장 참령(參領) 김진호(金振濤)는 당직 사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실에 없었고, 대부분의 시위대 장교와 병사가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다. 그나마 일부 시위대 장교와 병사조차도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휘관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자 경복궁의 춘생문, 광화문, 추성문 등에서 심상치 않는 조짐이 보였다. 일본수비대, 훈련대, 일본자객은 경복궁을 침입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미 새벽 4시경 대포를 동반한 훈련대 중 일부는 궁궐의 북동쪽 춘생문을 둘러쌌다. 또한 훈련대와 일본수비대 중 일부는 광화문 앞에서 정렬했다.

당시 일본수비대는 1대대 3중대 대략 600명, 훈련대 2대대 대략 1600명, 2개조로 구성된 일본 자객이 당일 사변에 참여했다. 경복궁 정문에서는 주한 일본공사관 무관 구스노세(楠瀬幸彦) 중좌의 지휘 하에 훈련대 교관 코이토(鯉登行文) 대위와 3중대장 마키(馬來政輔) 대위가 광화문에 배치되었다. 여기에 일본교관에 교육받은 훈련대 2대대는 우범선의 지휘아래 대기했고, 훈련대 교관 이시모리(石森吉猶) 대위와 타가마츠(高松鐵太郎) 대위는 2대대를 감시했다.

경복궁 후문에서는 일본수비대 대대장 우마야하라(馬屋原務本) 소좌의 지휘 하에 2중대장 무라이(村井右宗) 대위가 추성문에 포진했다. 훈련대 1대대는 이두황 대신에 중대장 이범래의 지휘하에 춘생문에 대기했다. 일본수비대 1중대장 후지도(藤戸興三)는 대원군을 호위했다.

서울에 거류하는 일본 자객은 2개 조로 조직되었다. 1조는 대장에 한성신보사 사장 아다치(安達謙藏), 부장에 현양사 소속 사사(佐正之), 객장에 자유당(천우협) 소속 타나카(田中賢道)였다. 이들은 저녁에 한성신보사에 집합하여 공덕리로 출발해서 대원군을 호위하여 광화문에 돌입했다. 2조는 천우협 소속 시바 시로오(柴四朗)의 ‘萬所巴城館’에 집합하고, 대장에 한성신보사 주필 쿠니토모(國友重章), 부장에 일본신문 특파원 아마다(山田列聖)였다. 이들은 추성문으로 직행하여 건청궁으로 침입했다.

조희연과 우범선은 훈련대의 동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전 군부대신 조희연은 훈련대 1대대의 장교들을 설득하여 정변에 참여할 것을 유도했고, 훈련대 1대대 병력의 일부를 이범래의 지휘아래 춘생문에 대기시키고, 나머지 일부를 건춘문을 비롯한 경복궁 주변을 경계하도록 지시했다.

훈련대 2대대를 지휘한 우범선은 대원군을 호위해서 광화문을 통해 대궐에 들어왔다.⁶⁾ 이미 우범선은 1895년 9월 27일 일본수비대 소위 미야모토(宮本)와 함께 용산에서 훈련대 2대대를 지휘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을 마친 우범선은 “훈련

6) 『駐韓日本公使館記録』 7권 73쪽, 10월 8일 事變(王妃弑害事件)의 犯人處分 件, 1895년 12월 30일 小村공사→西園寺외무대신. “禹範善이 출중한 줄 알았다.禹는 무엇보다 膽力에 出衆하였다... 그는 閔妃事變때도 가장 先鋒에 서서 활약하고 일을 지른 分量도 만하였었다. 軍人중으로는 主動者가 그었스니까”(삼천리 제6권 제5호 1934년 5월 1일, 권동진-韓末人物의 回想).

대는 열흘이 못되어서 해산될 것 같고, 훈련대 장교도 모두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빨리 도망칠 생각이다” 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미야모토에게 토로했다. 다음날 28일 우범선은 훈련대 교관 이시모리(石森吉猶)를 면담한 후 10월 3일 소좌(少佐) 우마야하라(馬屋原務本)와 대위 이시모리(石森吉猶)와 동반해서 미우라 공사를 방문하여 정변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그런데 정작 훈련대 소속 병사는 정변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훈련대 병사는 대대장 우범선과 이두황의 야간훈련 명령으로 8일 새벽 대궐 밖으로 유인되었고, 경복궁에 도착한 후 대궐을 호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훈련대의 대부분은 일본군대의 유도에 따라 경복궁을 진입했고, 어쩔 수 없이 정변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변에 가담한 훈련대 장교 및 일본 사관학교 출신은 정변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들은 “대원군으로 하여금 그 아드님 되시는 상감께 말씀하여 (왕비를) 폐비케 한 후에 다시 사약을 내릴 계획” 도 독자적으로 갖고 있었다.

2. 10월 8일 새벽 5시 : 추성문에서 올리는 한발의 총성

새벽 5시. 밤의 적막 속에 추성문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총성과 함께 일본수비대 3중대의 5-6명의 병사가 사다리를 타고 광화문 왼쪽 성벽을 넘었다. 성벽 위에 올라간 일본병사는 긴 밧줄을 성벽 안쪽에 던지고 내려와서 광화문 안쪽으로 진격했다. 광화문을 수비하던 시위대 위병은 저항했지만 일본수비대의 위협에 눌러 도피했다. 총성과 위협으로 시위대 위병을 쫓아버린 일본병사는 광화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자 일본수비대 3중대는 광화문을 통해서 경복궁에 진입하면서 광화문 주변을 장악했다.

5시 30분경 대원군을 비롯한 일본수비대 1중대, 훈련대 2대대, 일본자객 1조, 일본사관학교출신 등은 광화문 앞에 도착했다.

일본사관학교 출신인 권동진은 ‘왕비를 폐위시키고 민가일족과 수구파 일당을 제거’ 하기 위해서 정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원군의 가마가 경복궁 정면에 도착하자 광화문이 열렸다. 30분 후 동쪽 하늘에 먼동이 틀 무렵이었지만 아직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구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대원군은 이미 일본군대가 접수한 광화문을 일본수비대, 훈련대, 그리고 일본자객 30여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들어갔다. 광화문에 들어설 때 병사들은 총검을 꽂고 일본자객은 칼을 빼들었다. 동시에 정변에 참여한 모두

가 ‘와야’ 하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돌진했다. 새벽 녘 살기가 경북궁을 온통 에워쌌다.

5시 40분. 광화문을 지난 정변 가담자는 근정전 앞에서 2진으로 나뉘었다. 1진 일본수비대와 훈련대는 본대를 형성해서 광화문에서 신무문으로 향하는 대로로 진격했다. 2진 일본자객 및 대원군을 호위하는 1소대의 일본군대는 근정전을 바라보는 오른쪽으로 향원정을 향해 달려갔다. 5시 40-45분까지 신무문으로 가는 대로에서 100여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미 새벽 3시경 訓練隊 聯隊長 副領 홍계훈은 일본군대와 훈련대가 궁궐에 접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홍계훈은 신속히 궁궐의 북동쪽인 춘생문으로 달려가 훈련대에게 해산을 종용했지만 “당신은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니며 여기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일본교관 한 명뿐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홍계훈은 이학군에서 궁궐의 남쪽인 광화문의 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곧이어 홍계훈은 궁궐 수비대의 보고를 통해서 대궐 북서쪽인 추성문에 일본자객과 일본군대가 잠입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홍계훈은 근정전에서 건청궁으로 향하는 대로에 병력을 배치하고 기다렸다. 5시 40분경 1진인 일본공사관 무관 구스노세(楠瀬幸彦)는 일본수비대와 훈련대를 총지휘하며 진격하던 중 홍계훈이 지휘하는 궁궐수비대의 저항을 받았다. 홍계훈은 훈련대 병사들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의 명령에도 따르지 말라” 고 명령했다. 그러자 서로 총격전이 벌어졌다.

견여가는 어스름 속에서 궁궐수비대는 상대편에 일본수비대가 훈련대에 가담한 것을 확인했다. 궁궐수비대는 일본수비대의 가세로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을 깨닫고 점차 사기가 떨어져갔다. 일본수비대와 훈련대 중 일부 병력도 사건의 내막을 모른 상태에서 갑자기 전투를 수행하여 점차 소극적인 자세가 되었다.

시간을 끌면 끝수록 불리하다고 판단한 구스노세는 소극적인 병사의 행동을 꾸짖었다. 구스노세는 자신이 직접 검을 빼들고 칼날을 휘두르며 상대편으로 과감하게 뛰어 들었다. 이 과정에서 구스노세는 홍계훈과 대적했고, 홍계훈의 어깨를 내려침으로써 상처를 입혔다. 그러자 훈련대 2대대 지휘관인 우범선은 쓰러져 있는 홍계훈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 홍계훈이 무너지자 수백의 궁궐수비대인 시위대는 총검을 버리고 제복을 벗으면서 달아났다. 이후 홍계훈은 그의 집으로 옮겨졌다. 유럽인 의사가 홍계훈의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사망했다.

2진인 일본자객은 광화문을 들어서서 30-40(30間)미터를 달리며 두 번째의 소문을 통과할 무렵 광화문 근처에서 총성이 들렸다. 일본자객은 광화문 부근의 전투에 개입하지 않고 대궐의 후방을 향해 돌진했는데 그 순간 앞쪽에서도 총성이 났다. 2진인 일본자객은 근정전 근처에 대원군의 가마를 멈추게 하고 전방에 진로가 열리는 것을 기다렸다. 잠시 후 일본자객은 1소대의 일본 병사에게 가마를 지키게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돌진했다. 일본자객은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돌아 후궁을 향해서 치달아 향원정 근처에 도달했다. 5시 50분경 거기서 소나무가 우거진 조그마한 등성으로 진출하여 건청궁의 외곽에 도착했다.

건청궁은 사방이 거의 2킬로미터(5리) 쯤 되는 경복궁의 맨 뒤 끝에 있다. 경복궁 광화문에서 건청궁까지 도달하려면 정문인 광화문에서 호수인 향원정까지 4-5군데의 대문을 지나가야 했다. 각 대문마다 2명의 궁궐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다.

당시 건청궁은 왕이 사용하는 장안당과 왕비가 머무는 곤녕합, 그리고 장안당 뒤에 서재로 관문각을 지어서 마치 사대부가의 사랑채, 안채, 서재로 구성되었다. 건청궁 정문을 지나 초양문을 들어서면 고종의 집무실인 장안당이 있었다. 함광문을 들어서면 왕비가 거주하는 곤녕합과 정시합이 있었다. 1895년 8월 건청궁에서 고종을 접견한 뮌헨은 “알현실은 대단히 넓으며 계단이 있는 남쪽으로 향해 있었고, 북쪽으로는 접견실로 보이는 다른 방들과 종이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었다” 고 장안당을 묘사했다.

건청궁 성벽으로 둘러싸인 앞마당에는 전각이 세워져있고, 한 가운데 있는 한 채를 국왕과 왕비가 편전으로 쓰고 있었다. 남향으로 세워진 편전은 동서로 길게 뻗어 몇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⁷⁾ 일본자객이 침입한 그때 왕비는 건청궁의 맨 동쪽 끝에 있는 한국식의 미닫이를 동남의 양 쪽으로 달아놓은 옥호루 주변에 있었다. 그로부터 서쪽으로 향해서도 많은 방이 있는데, 국왕은 왕비의 옆방인 곤녕합에 머물렀다.

새벽 5시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 추성문의 위병도 총과 탄환을 버리면서 도망쳤다. 당시 대궐에는 대략 1600명의 병력과 50명의 장교가 대궐을 수비했다. 그런데 사바짚은 대략 300명의 병사와 8명의 장교만 목격했다. 잠시후 일본수비대 2중대는 성벽에 사다리를 세워 놓고 추성문 옆 성벽을 넘었고, 훈련대 1대대는 춘생문과 춘화문을 넘었다. 일본수비대 2중대와 훈련대 1대대는 계무문(癸武門)으로 향했고, 경복궁의 북쪽을 장악했다. 벽을 타고 넘어온 군인이 추성문을 열어주는 동안 다이 장군은 대궐

7) 小早川秀雄, 『閔后暗殺記』, 100쪽, 1965

수비를 위해서 계무문(癸武門) 안쪽으로 남아있는 시위대 병력을 집결시켰다.

일본수비대장 우마야하라(馬屋原務本)는 추성문을 공격하기 직전 정변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연설했다. 그는 “일본정부는 한국의 정치를 계도하기 위하여 청국과 싸우면서 한국의 독립을 확고히 하고 동양의 대국(大局)을 보전하려고 노력했다” 며 청일전쟁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금 왕비가 한국 정부의 권리를 전단하여 한국이 망하게 되어서 일본도 보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일본이 보전할 수 없으면 청국 역시 존립하기 어렵고, 청국이 사라지면 동양의 대세도 무너진다” 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일본 중국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면서 왕비의 잘못으로 동양의 대세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왕비가 조선 5백년 종사의 죄인이며, 조선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의 죄인이다. 정령 동양의 죄인이다” 며 정변에 참여한 군인과 자객에게 왕비에 대한 증오심을 끌어올렸다.

3. 10월 8일 새벽 5:15 : 사바찐이 목격한 건청궁 현장

새벽 5시 15분 일본인, 일본병사, 훈련대는 계무문을 통과하여 무청문(武淸門)에 도달했다. 무청문에서 고종이 거주하는 장안당으로 들어가는 필성문(弼成門)까지 대략 50미터(80걸음, 29間) 정도였다. 다이의 지휘 하에 필성문 주변에 대략 300명의 시위대 병력이 정렬했다. 침입자들이 무청문의 1-2인치 너비의 5-6개 틈으로 시위대의 머리 위쪽으로 한번에 30-40발을 세 차례 발사했다. 6미터 이상의 위협사격을 받았지만 시위대 병사 중 1명만 어깨에 부상을 당했다. 위협사격이 개시되자 사바찐은 필성문 안쪽에 몸을 숨겼고, 다이는 서양인 숙소로 향하는 쪽문에 피신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자 시위대는 총을 한 발도 쏘지 않고 약실에서 탄환을 꺼내면서 방전시켰다. 시위대는 총과 탄환을 버리고 군복을 벗어 던지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한 무리는 다이 장군을 떠밀면서 서양인 숙소로 향하는 쪽문으로 향했지만 그쪽으로는 침입자들이 추격하지 않았다. 다른 무리는 사바찐이 숨었던 필성문으로 몰려갔다.

사바찐은 관료, 시위대병사, 시종 등 대략 300명 정도의 인원에 이끌려 왕비의 침소로 통하는 문까지 밀려났다. 사바찐은 장안당을 돌아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건설했던 관문각(觀文閣)⁸⁾을 지나 왕비의 침소인 정시합(正始閣)의 정면에 있는 담장에 설치

된 일각문(一角門)⁸⁾에 자신을 은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침입자들이 여기까지 몰려오자 사바찐은 왕비의 침소와 연결되는 문을 포기하고 뒤로 밀려나면서 녹원(鹿苑)으로 향하는 청휘문(淸輝門) 옆 곤령합(坤寧閣) 동행각(東行閣)의 문 아래 판자를 붙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바찐을 지나쳐 청휘문을 통해 녹원으로 도망쳤지만 사바찐은 곤령합 동행각에 서서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곤령합을 장악한 40명의 훈련대, 1명의 일본장교를 포함한 5명의 일본 군인, 도검으로 무장한 20-25명의 일본자객 등은 곤령합에 정렬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 군인은 청휘문과 정시합 정면에 있는 일각문에 2명씩 배치되었다. 1소대 40명의 훈련대는 곤령합 마당에서 총을 비스듬히 내려놓고 정렬했다. 일본 자객 중 4-5명은 칼을 뽑았고, 긴 칼을 차고 단검을 빼든 일본인이 현장을 지휘했다. 사바찐은 현장을 지휘한 일본인이 매우 고상한 외모에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었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사바찐은 자신의 증언과 보고서에서 현장을 지휘한 일본인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К.И. Вебер)와 즈프(芝罘) 주재 러시아 부영사 짐첸코(А.Н. Тимченко-Островерхов)도 사바찐의 증언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당시 고종은 현장에서 주한 전 군부고문 오카모토(岡本柳之助), 오카모토의 사적인 통역관 스즈키(鈴木順見), 영사관 정부(警部) 와타나베(渡邊鷹次郎)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주재 일본 일등영사(一等領事) 우치다(内田定槌)는 본국에 보낸 을미사변 보고서에서 오카모토(岡本柳之助), 한성신보사 주필 구니토모(國友重章), 한성신보사 기자 사사키(佐佐正之), 쓰키나리(月成光)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자객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미우라 공사의 히로시마(廣島)재판 증언에 따르면 오카모토가 일본 자객을 지휘했고 일본 자객의 명성황후 암살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그날 새벽 3시에 오카모토는 대원군과 함께 공덕리를 출발했다. 그날 대원군은 광화문으로 입궐했다. 그런데 오카모토는 일본 자객 중 가장 먼저 건청궁에 도착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오카모토는 대원군을 설득한 이후 새벽 3시경 일본 자객을 지휘하기 위해서 추성문으로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벽 4시 30분경 먼저 추성문에 도착한 오카모토는 5시 일본 자객을 총 지휘해서 건청궁으로 침입했다.

8) 西洋殿(европейский дом)으로도 불림

9) 복수당(福綏堂) 서행각(西行閣)의 담장에 붙어있는 작은 문

오카모토(岡本柳之助)의 지휘아래 20-25명의 일본자객은 곤령함의 廳과 房을 거쳐 옥호루(玉壺樓), 사시향루(四時香樓), 그리고 정시합(正始閣)의 房을 살살이 뒤흔들며 명성황후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자객은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어내며 왕비의 소재를 추궁했다. 일본 자객은 두 자루의 길고 짧은 도검으로 무장했다. 도검 중 긴 것인 가타나(刀)는 90cm 정도였고, 짧은 것인 와키자시(脇差)는 59cm 정도였다. 일부 일본 자객은 궁녀들이 왕비의 소재를 대답하지 않자 약 180cm의 높이인 옥호루의 창문 너머로 10-12명의 궁녀들을 던져버렸다. 사바전은 약 10m(20-25 걸음)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옥호루 바닥에 떨어진 궁녀들의 표정을 살펴볼 수 없었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궁녀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사바전은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사바전은 일본 장교의 보호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사바전은 용기를 내서 곧바로 일본 장교에게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자 사바전은 조금 알고 있는 일본어로 일본 장교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¹⁰⁾ 현장에 있던 일본 장교는 미야모토(宮本竹太郎) 소위였다. 미야모토는 훈련대의 일본 교관으로 훈련대 2대대장 우범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미야모토는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사바전은 옆에 있던 일본 군인에게도 접근했지만 사바전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급해진 사바전은 지휘자인 오카모토에게 접근할 것을 결심했다. 사바전은 오카모토에게 영어로 아침 인사를 하면서 접근했다. 그러자 오카모토는 “당신의 이름과 직업은 무엇인가?” 라고 냉정한 어투로 물어보았고, 사바전은 이름과 직업을 밝혔다.

사바전은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면서 먼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다. 서둘러 사바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곤령함까지 왔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바전은 최대한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방의 시선을 끌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오카모토는 “당신은 보호되었고, 여기에 머무를 것” 을 명령했다. 그런데 오카모토가 외국인인 사건 현장을 목격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신변 보장에 안도감을 찾은 사바전은 오카모토에게 1-2명의 군인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카모토는 곤령함 마당에 있던 일본말을 구사하는 두 명의

10) AVPRI. Ф.150. Оп.493. Д.6. Л.125 о 6

훈련대 병사를 불러 사바찐의 옆에 서 있도록 명령했다. 이런 상태로 사바찐은 15분 정도 곤령합 마당 구석에서 현장을 목격했다.

새벽 5시 30분 5명의 일본 자객은 소리를 지르면서 곤령합의 계단으로 나왔다. 이들 중 한명은 일본어로 정렬적인 연설을 하더니 다시 곤령합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궁녀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곤령합의 계단으로 뛰어 나왔다. 뛰어 나오는 속도를 멈추지 못한 양복을 입은 2명과 기모노를 입은 3명의 일본인은 정면에서 사바찐을 발견했다. 그들은 핏발이 선 눈으로 놀라움에 약 10초 동안 정지했다. 정신을 차린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말과 한국말로 사바찐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사바찐은 숨을 멈췄다. 어떻게 대응할까를 망설였다. 사바찐은 일본말과 한국말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자 그들에게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바찐은 이들 중 누군가 영어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잠시 후 이들은 사바찐을 보호하고 있는 훈련대 병사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곤령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던 그 순간 사바찐은 곤령합 마당으로 들어오는 한 한국인과 눈을 마주쳤다. 그는 사바찐이 들어온 정시합(正始閣)의 정면에 있는 담장에 설치된 일각문(一角門)으로 들어왔다. 이 한국인은 사바찐을 보고 놀란 나머지 ‘아’ 하며 탄성을 질렀다. 그는 사바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 한국인은 대궐 안에서 비서를 담당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너무 놀라 잠시 멈칫거렸다. 그는 곧바로 곤령합으로 들어가고 있는 일본 자객에게 접근하며 활기차게 이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사바찐은 결코 건축기사가 아니며 아마도 대궐 배치와 명성황후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5명의 일본 자객이 사바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빠르게 달려왔다.

이 순간 사바찐은 가장 끔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자객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자 훈련대 병사 2명은 신속하게 길을 내주면서 옆으로 물러났다. 이들 중 한명은 사바찐의 옷깃을 잡았고, 다른 한명은 사바찐의 소매를 잡았다. 동시에 일본말과 한국말로 “왕비가 있는 곳을 가리켜!” 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바찐은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놀란 표정까지 지었다.

그런데 사바찐의 옷깃을 잡았던 한명은 영어로 말했다. “왕비는 어디? 어디에 숨었는지 우리에게 가리켜!” 라며 사바찐에게 반복했다. 짧은 순간 사바찐은 흰 눈동자를 굴리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생각이 떠올랐다.¹¹⁾ “외국인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왕비의 얼굴뿐만 아니라 왕비의 속소를 전혀 알 수 없다” 고 차분하게 답변했다. 사바찐

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일본자객은 왕비의 숙소를 가리킬 것을 강요할 속셈으로 곤령합으로 사바찐을 끌고 갔다.

그 때 멀지 않은 곳에서 현장 지휘자 오카모토가 보였다. 오카모토는 여기서 벌어진 상황에 주목하면서 사바찐에게 다가왔다. 일본 자객은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사바찐과 사바찐을 알아본 한국인을 손짓하면서 일본말로 오카모토에게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난후 오카모토는 엄한 목소리로 사바찐에게 말했다. “우리는 왕비를 찾지 못했소. 당신은 왕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테니, 왕비가 어디에 숨었는지 우리에게 가리키시오.”

순간적으로 사바찐은 일본 자객이 자신을 손짓할 때 가장 적절한 답변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사바찐은 자신에게 왕비의 소재를 묻는 것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사바찐은 오카모토에게 한국의 관습과 법에 따라 왕비의 얼굴뿐만 아니라 왕비의 숙소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또다시 반복했다. 다행히 오카모토는 사바찐의 변명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바찐을 놓아줄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사바찐을 알아본 그 한국인은 끈질기게 오카모토에게 뭔가를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 한국인은 사바찐이 풀려난다면 사바찐을 고발한 자신에게 닥칠 혹은 모르는 불이익을 생각했던 것 같다. 사바찐은 곤령합의 유일한 서양인 목격자인 자신을 풀어주어 발생하는 위험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때 오카모토는 한국인의 의견에 동의하듯이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곳으로 움직이려고 했다.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본 사바찐은 자신이 한국인의 쥐덫에 걸렸다고 판단했다. 사바찐은 대궐을 신속히 빠져나가는 길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사바찐은 옆에 있던 훈련대 병사가 말리는 것을 뿌리치며 재빨리 오카모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사바찐은 “그가 자신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다. “당신과 같은 신사들은 자신의 말에 항상 책임을 진다”며 오카모토를 추켜세웠다. 그는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 자신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오카모토에게 애원했다. 사바찐은 “자신이 궁궐에서 나가는 것을 호위해 줄 군인을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새벽 5시 45분 오카모토는 훈련대 군인 2명에게 사바찐을 곤령합에서 데리고 나갈 것을 명령했다. 사바찐을 알아본 한국인도 오카모토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11) АВПРИ. Ф.150. Оп.493. Д.6. Л.75 о 6

사바찐과 함께 출발했다. 한국인은 인적이 드문 궁궐 뒤쪽인 복수당(福綏堂) 출입구로 유도하면서 사바찐에게 앞장설 것을 명령했다. 앞서서 걸어가던 사바찐은 곤령합에서 장안당으로 가는 자유로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드문 복수당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다. 더구나 사바찐은 한국인이 훈련대 병사에게 몰래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을 느꼈다. 곤령합을 벗어나 복수당을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바찐은 훈련대 병사가 자신보다 조금 앞에 서서 걸어갈 것을 제안했다. 훈련대 병사가 자신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사바찐은 다시 한번 완강하게 주장하였고 관찰시켰다.

일본 자객으로부터 벗어나자 사바찐은 극단의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사바찐은 아주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지만 혹시 모르는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바찐은 불안한 태도를 버리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팔짱을 낀 채 걸어갔다.

사바찐은 관문각을 거쳐 장안당을 지나면서 일본 군인과 장교, 한국 관료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¹²⁾ 대략 8-10명의 일본 장교가 100-150명 정도의 일본 군대를 지휘했다. 사바찐은 한국관료가 장안당에 집결해 있는 것을 보면서 고종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사바찐은 장안당을 거쳐 6시에 대궐 남문인 광화문을 통과했다.

죽음의 그림자

결국 사바찐은 건청궁의 정황을 상세하게 증언했지만 왕비의 암살과정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바찐은 을미사변 관련하여 증언뿐만 아니라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사바찐은 을미사변 직후 10월 8일 러시아공사 베베르에게 사건에 관해 증언했다. 또한 사바찐은 즈프주재 러시아부영사 짐첸코의 권유로 10월 30일 을미사변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북경주재 공사에게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사바찐은 서울주재 독일영사를 비롯하여 일부 외국인들이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런데 사바찐의 증언과 보고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선 사바찐은 당일 사건을 둘러싼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12) АВПРИ. Ф.150. Оп.493. Д.6. Л.75 о 6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К.И. Вебер)와 즈프주재 러시아부영사 째첸코(А.Н. Тимченко-Островерхов)는 사바찐에게 을미사변에 가담한 일본인의 이름을 강하게 추궁했다. 두 사람은 사바찐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자 사바찐에 대한 의혹을 품었다.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는 외교단회의에서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 사바찐을 간접적으로 노출시켰다. 이로 인해 사바찐은 자신에게 “가장 참혹한” 결과가 닥쳐올 것을 직감했다. 사바찐은 증언 공개로 자신의 목숨이 더욱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및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 관료 등은 을미사변 현장에서 사바찐이 더 많은 사실을 목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했다.

이러한 의심 때문에 사바찐은 자신의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실제 10월 8일 저녁 1명의 유럽인과 2명의 한국인은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사바찐이 암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사바찐은 대질신문을 통해서 을미사변에 관련된 일본인과 한국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날 이후 암살의 위협 때문에 사바찐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또한 사바찐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저녁 마다 집을 떠나야했다.

사바찐은 10월 9일 한국 내부협판 유길준이 자신을 한국 내부의 고문관으로 제안하자 더욱 불안함을 느꼈다. 사바찐은 고문관의 제안을 을미사변 이후 출범한 내각이 자신을 위협한 존재로 인식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공사관은 러시아 공사관에 書記官 스키무라(杉村濤)를 파견하여 사바찐의 증언을 확인하겠다고 제안했다. 사바찐은 사건 현장의 내용을 사건에 가담한 스키무라에게 증언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한국정부와 일본공사관이 점점 압박하자 사바찐은 러시아공사 베베르에게 각종 조언을 구했다. 그런데 베베르는 사바찐의 증언에서 구체적인 가담자의 성명이 나오지 않자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베베르는 오히려 서기관 슈페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바찐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힐책했다. 더구나 사바찐은 내부 고문관의 제안에 대해서 베베르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들었다.

그런데 오키모토가 왕비를 살해하는 상황에서 사바찐을 보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바찐은 정력적이었지만 한편으로 신중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사바찐은 삼국 간섭 이후 “러시아공사 베베르 부인의 자매인 존타크와 왕비와의 친분이 주한 일본인 및 일본과 연대하는 한국인의 분노를 머리끝까지 자극했다” 고 생각했다. 사바찐은 외

교적 수완이 전혀 없는 존타크와의 친밀한 관계가 왕비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사바찐은 한국에서 러시아가 일본을 자극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이러한 사바찐의 중립적인 태도는 일본인에게 사바찐에 대한 반감을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바찐은 10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거주 외국인과의 친분관계가 두터웠다. 그런 배경으로 을미사변 전날 출근할 때 중국인 친구는 사바찐의 출근을 저지했고, 을미사변 직후 유럽인 친구는 사바찐에게 암살 위험을 경고했다. 한국 군부고문관으로 경복궁을 출입한 오카모토는 ‘건축사이자 궁궐감시자’ 라는 사바찐의 신분을 확인한 순간, 사바찐의 존재를 쉽게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일본인이 러시아인을 살해한다면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적 파장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만큼 사바찐을 살해했을 때 미치는 파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관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바찐의 중립적인 태도, 외교적 파장 등을 의식해서 사바찐을 보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서울거주 일본인과 한국인 일부는 사바찐이 ‘더 많은 사실’ 을 목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했다. ‘더 많은 사실’ 이란 무엇일까?

사바찐에 따르면 새벽 5시 45분 건청궁을 출발한 사바찐은 정동소재 러시아공사관에 6시 30분 도착해서 베베르 공사와 슈테인 서기관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증언했다. 아무리 느린 걸음으로 건청궁에서 광화문까지 걸어도 15분, 광화문에서 정동 러시아공사관까지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사바찐이 발걸음을 늦췄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사바찐은 새벽 5시 45분이 아니라 6시 건청궁을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5시 45분에서 6시 사이는 왕비가 암살되었던 시점이었다.

또 다른 사실은 오카모토가 사바찐의 변명을 너무 쉽게 믿었고, 유럽인 사바찐을 곤령합 현장에 방치했다는 점이다. 사바찐의 증언과 보고서, 러시아와 일본 외교문서 등을 살펴보면 사바찐이 일본인에 의해 건청궁 내부에서 구금되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합의가 존재했음에 틀림없다. 사실 사바찐이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인물은 일본자객의 총지휘자인 오카모토였다. 사바찐은 오카모토가 드러나면 자신과 오카모토와의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바찐은 베베르의 추궁과 힐책에도 끝까지 침묵했다.

당일 사바찐의 행적에 관한 주요한 기록이 일부 남아있다. 서울 한성신보 편집장

고바야카와(小早川秀雄)는 “칼날이 번뜩이고 마당 안팎을 자객들이 우왕좌왕 할 때” 러시아인 사바찐이 현장을 목격했다고 기록했다.

우치다(内田定槌) 영사는 ‘벌써 해가 뜬 상황’에서 미국인 다이 장군을 목격했고 “다이와 함께 왕궁 안에 숙직했던 러시아인 사바찐도 역시 숨어서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당시 공식적인 일출 시간은 6시 34분이었고, 해가 뜬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6시 이전으로 볼 수 없다.

고등재판소는 사바찐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사파찐의 보고에도 일렀으되, 일본 사관들이 전정에 모여 일본자객들이 모든 일을 완전히 지을 줄을 이미 알았다 하였고, 또 일렀으되, 자객이 왕후를 해할 때에 일병이 전각을 환위하여 전문을 파수했다 하고, 그 자객이 각처에 찾더니...”라고 기록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사바찐은 왕비가 암살될 시각인 5시 50분 전후에 현장에 있었음에 틀림없다.

사건의 현장에서 사바찐과 오카모토는 어떤 합의를 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사바찐의 생명을 구해주는 대신에 오카모토를 비롯한 일본자객의 폭력과 살해에 관해 침묵을 지켜주는 조건이었을 것이다. 사바찐은 을미사변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에서 오카모토를 “매우 고상한 외모” “단정한 양복 차림” “당신과 같은 신사” 등으로 폭도가 아닌 신사로 묘사했다. 결국 사바찐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오카모토의 이름을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고, 왕비를 비롯한 궁녀의 살해를 증언하지 않았다.

사바찐은 베베르와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러시아공사관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사바찐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과거 자신에 대한 공사관의 부당한 태도를 언급하면서 베베르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사바찐은 공사관으로부터 자신에게 적당한 직장을 소개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고, 러시아공사관 건축에 참여한 자신의 인건비 7%를 공사관에게 지불하지 않았던 사실도 기록했다.

신경이 더욱 예민해진 사바찐은 이리다가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사바찐은 을미사변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리를 피하고, 베베르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바찐은 제물포에서 포함 까레이즈(Кореец)를 타고 10월 11일 즈프(芝罘)에 도착했다. 사바찐은 즈프의 시워(シ—ヴエ—, 玺悦) 호텔에 머물면서 러시아 부영사 짐첸코(А.Н. Тимченко-Островерхов)이외에는 아무도 면회하지 않았고, 을미사변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호텔의 방안에 틀어박혔다. 사바찐은 10월 30

일 러시아부영사에게 자신의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까쁘니스트(Д. А. Капнист)의 초청으로 북경으로 출발했다.

결국 을미사변의 목격자 사바찐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 주한 러시아공사관의 보호마저도 받을 수 없었다. 주한 러시아공사관은 사바찐의 증언을 기초로 일본의 책임론을 부각시켜 한국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주한 일본공사관과 김홍집내각은 을미사변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바찐을 회유하려고 시도했다. 을미사변의 진실을 둘러싼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지자 사바찐은 자신의 중립적인 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사바찐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열강의 외교관계에서 한 인간의 생존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 기울어진 선택이 단기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환영받지 못한 목격자 사바찐은 자신의 생명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피하는 길을 선택했다. 한 인간의 선택과는 달리 한국·일본·러시아 정부는 러일전쟁 직전까지 명성황후 암살의 배후 논쟁을 끊임없이 진행했다.

동아시아를 잇는 고리, 고구려

° 김현숙

동아시아를 잇는 고리, 고구려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1. 고구려 멸망 후 그들은 어디로 갔나?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평양성이 함락된 후에도 고구려 지역에는 상당수의 주요 성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다. 李勣의 보고에 의하면 669년에 이르기까지도 新城州, 遼東城州, 安市城 등 11개의 성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고, 또 鴨綠水 以北의 성 7개가 도망했다고 한다. 이 해 2월에는 寶藏王의 외손인 安勝이 4천여 호를 이끌고 신라에 귀부하기도 했다. 보장왕이 唐에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지역의 대표적인 大城들이 항복하지 않았고 이미 점령한 지역에서도 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해 버리는 등 唐의 지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인의 항쟁이 이처럼 지속되는 가운데 唐은 그 유민에 대한 지배를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하나는 徙民策으로서 왕을 비롯한 상층 귀족과 豪強者들을 대거 唐內地로 옮겨 府州에 편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구려 故土를 羈糜州로 편제한 다음 남아 있는 사람들을 예속시켜 집단적으로 통치하는 것이었다.

唐의 고구려인 집단천사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첫 번째는 645년 唐太宗의 원정이 끝난 후, 두 번째는 669년, 세 번째는 681년에 각각 실시되었다. 세 번째 사민은 669년에 強制遷徙했다가 677년에 보장왕과 함께 요동으로 귀환시켰던 그 사람들을 다시 옮긴 것이다. 이외에도 麗唐戰爭의 과정에서 발생한 포로 가운데 상당수도 唐內地로 끌려갔다. 唐은 왕족과 親唐派 귀족들, 그 외의 일부 유민만 上都인 長安과 東都인 洛陽에 안치했고, 나머지 대다수의 유민들은 변경 여러 주의 空閑地에 분산, 배치했다.

그런 한편 고구려의 고지는 9도독부 42주 100현으로 편제하고, 그 총괄기구로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고구려인 추장과 거수들 가운데 유공자를 뽑아 도독, 자사, 현령으로 삼고 중국인 관리와 함께 지역을 통치하게 했다. 이는 唐의 관리가 통치

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 지역민이 자치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기미통치보다 좀 더 강한 지배책이었다.

이와 같은 唐의 지배에 대해 고구려 유민들은 집단이주와 무력항쟁으로 저항했다. 『舊唐書』에 나오는 “其後頗有逃散”이란 기록처럼 많은 고구려 유민이 도망하고 흩어져, 평양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기미통치는 처음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더욱이 검모잠 등이 벌이는 고구려 부흥운동과 신라의 對唐鬪爭이 서로 연결되면서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실시하려 했던 支配案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671년에 안시성이 함락되고, 672년에 있었던 白水山 전투에서 신라군과 연합한 고구려부흥군이 패배함에 따라 요동지역에서의 대규모 전투는 일단락되었고, 673년 瓠瀟河(임진강유역)에서 唐軍에 패배함으로써 고구려 부흥운동은 좌절했다. 하지만 675년 買肖城(楊州부근)과 伎伐浦에서 벌어진 신라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계기로 唐은 안동도호부를 요동지역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당의 지배는 요동에 한정되게 되었다.

唐은 고구려유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668년부터 안동부에 재직해왔던 중국인 관리들을 모두 파직하고, 그 다음 해에 보장왕을 요동도독으로 삼고 조선왕에 봉한 뒤 요동으로 보내 지역민들을 안무하게 했다. 이때 669년에 唐 內地로 강제 遷徙시켰던 유민들도 대부분 다시 돌려보냈다. 전에 비해 훨씬 유화적인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 결과 요동지역 지배가 조금 안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곧이어 보장왕이 말갈족과 공모해 反唐抗爭을 도모한 것이 발각되었다. 이에 보장왕은 681년에 소환되어 邳州로 유배되었고, 그 유민들은 다시 河南道와 隴右道 방면으로 끌려갔다. 이로 인해 안동성 근처에는 가난한 자만 남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또 말갈, 돌궐 등지로 옮겨간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인구가 많이 감소되었다.

그 뒤 696년에 이르러 여러 이민족들이 모여 살던 영주지역에서 거란인 이진충의 반란이 일어나자 이를 기회로 대조영과 결사비우가 이끄는 고구려유민들이 집단적으로 이탈해 동북쪽으로 탈주했다. 이들은 동모산에 이르러 발해를 건국했고, 곧 고구려고지의 대부분을 회복했다. 발해는 국초부터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자처했다.

한편, 멸망을 전후해 신라지역으로 간 고구려인들도 많았다. 666년 12월에 고구려의 대신 淵淨土가 12개 성읍 763호, 3543인을 거느리고 신라로 갔다. 연정토는 남생이 唐에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함께 당에 항복하려고 했지만, 마음을 바꿔 신라에 귀부했다. 문무왕 8년(668)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고구려의 大谷, 漢城 등 2郡 城이 歸服해 오기도 했다.

그리고 669년 2월에는 安勝이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로 갔으며, 검모잠이 주도하던 고구려 부흥운동이 좌절된 후 그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신라로 갔다. 羅唐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 溟西 지역 사람들도 신라로 편입되었다. 여기에 문무왕이 고구려와의 전투과정에서 포로로 잡아온 7천명의 고구려인들도 있었다.

국내로 들어온 고구려유민의 수가 증가하자 신라에서는 그에 대한 지배정책을 수립했다. 신라는 안승을 비롯한 고구려유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들을 金馬渚(익산)로 옮겼고, 670년 8월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했다. 고구려가 망한 뒤 2년 만에 고구려 유민들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금마저 고구려국에서는 671년부터 682년까지 8차례에 걸쳐 거의 매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려는 금마저 고구려국의 강한 자주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라 영토 안에 건국된 고구려는 근본 자주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671년과 672년의 使行을 제외하고는 고구려국의 사신이 일본에 파견될 때 신라가 이들을 築紫에까지 수행했다. 이는 고구려국의 동향 및 대 일본 외교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였다. 그나마 682년 6월의 遣使를 끝으로 고구려국의 대 일본 외교사행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라는 674년 9월에 안승을 보덕왕에 봉하였다. 이는 ‘고구려왕’이란 칭호 자체를 부정하여 고구려에 대한 계승의식을 제거하고 신라에 복속된 소국으로 격하시키려는 조치였다. 또 680년 3월에는 안승과 王妹를 혼인시켰고, 이어 683년 10월에는 안승에게 蘇判의 관등과 김씨 성을 주면서 京都에 머물게 했다. 이는 안승을 왕이 아닌 신라왕의 신하로 만드는 조치였다. 이에 보덕국민들은 신라조정에 대해 무력항쟁을 벌였지만 신라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그 국민들은 ‘國南州郡’으로 옮겨졌다.

신라도 역시 자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구려유민들에게 건국을 허용했다가 필요성이 없어지자 소멸시키고 일반 주군의 민으로 편제한 것이다. 그렇지만 보덕국의 소멸 이후에도 신라로 들어오는 고구려유민들이 간헐적으로 존재했다. 발해와 요동의 소고구려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가 아닌 신라로 귀부해 오는 고구려유민들이 있었다.

백두산 주변에 있다가 8세기 초반 경에 개성 부근으로 내려 온 왕건의 선조와 흥덕왕 2년(827) 3월에 신라로 온 고구려승 丘德 등을 보면 고구려가 망한 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까지도 신라로 귀부해 오는 고구려유민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들은 唐 내지로 强制遷徙되거나, 고구려 고지에 남아 있다가 발해 건국 후 그 속에 편입되거나, 신라로 자진 귀부하거나 했다. 이외에 앞의 경우보다는 소수지만 돌궐 쪽으로 들어가거나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 중 돌궐로 간 사람 가운데 일부는 唐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다시 唐으로 귀부하기도 했다. 唐 玄宗 開元 3년(715)에 唐으로 와 官爵을 받은 高文簡과 高拱毅 등이 그들이다.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한 후 요동지역으로 옮겨졌던 발해민들은 뒤에 다시 중국으로 편입되었다.

2. 고구려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구려사를 계승한 사람들

고구려유민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누가 계승하고 있는지 문제가 최근 몇 년동안 한중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다. 유민들의 거취와 고구려사의 귀속문제를 논하고자 할 때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하나는 그들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선택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각지로 흩어져 간 고구려유민들이 가지고 있던 자의식이란 부분이다.

먼저 그들의 거취 결정시의 자의성 여부를 보면, 중국으로 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의적인 선택이었다. 물론 중국으로 간 유민 가운데에도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개인적 영달을 위해 자진해서 건너간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연개소문의 아들인 남생과 그 아들인 현성, 고죽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후 唐의 정책에 따라 강제로 집단 遷徙되었다.

당은 러수전쟁을 비롯해 중국과의 허다한 전쟁과정에서 이미 고구려인의 강인한 정신력과 군사력을 확인했으므로, 나라가 망하더라도 다시 모여 부흥운동을 벌이고, 당에 대적할 것임을 예상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원래의 영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거리 지역으로 고구려인들을 집단사민했다.

당에서는 고구려 재건작업에 앞장 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즉 豪強한 자들 대부분을 골라 唐 내지의 空閑地로 옮겼다. 이곳으로 옮겨진 자들은 고국과의 접촉가능성이 차단되었으므로 부흥을 도모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척박한 지역을 개간해야 했다. 府兵制에 편입됨으로써 唐의 지방 군사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唐으로서는 이 정책으로 인해 많은 효과를 한꺼번에 거두었던 것이다.¹³⁾

13) 『舊唐書』 권93 王峻傳에는 오르도스 지역으로 항복해 온 일부 돌궐족이 다시 동요하여 이탈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자, 왕준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들을 남부로 옮길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내용이

반면 신라나 발해, 일본, 돌궐로 간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귀부한 것이었다. 물론 신라로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에도 전쟁포로들은 강제로 끌려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보다는 자진 귀부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발해나 돌궐, 일본 등지로 간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뜻에 따라 거취를 정한 경우였다.

다음으로 고구려유민들의 자의식이라는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 간 사람들 가운데 강제로 集團遷徙되어 江淮 이남 지역 및 山南과 京西 諸州의 空曠之地로 보내졌던 사람들은 보장왕이 요동으로 돌아갈 때 함께 되돌려보내졌다. 그리고 보장왕과 말갈의 復國企圖가 발각된 후 다시 옮겨졌다. 이들은 당 조정의 감시와 통제 아래 집중 관리되었다.

따라서 비록 심정적으로는 고구려부흥을 꿈꾸면서 당의 지배를 거부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다. 이들은 살기 위해 중국사회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몇 세대를 지난 후에는 모두 중국인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망국민이 처한 어쩔 수 없는 현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고구려인이라 의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이들과 달리 중국에서 고위직에 올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도 있었다. 보장왕의 후손들과 연개소문의 자손들, 그리고 일부 자진투화한 귀족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위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 내에서도 특권을 누렸다. 그러므로 고구려인이란 의식보다 중국의 臣民이란 의식이 더 강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묘지명과 사료에 나오는 유민들의 출신지 표시를 보면, 대부분 자신이 고구려의 후손임을 밝혀 놓고 있다. 유민 1세대인 泉男生의 경우 그의 묘지명에 ‘遼東郡 平壤城人’ 이라고 자신의 출자를 밝혀놓았고, 高慈의 경우에는 ‘朝鮮人’ 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연개소문의 손자인 泉獻誠의 묘지명에는 ‘其先高句驪國人’ 이라고 그의 유래를 밝혀놓았다. 하지만 천현성의 삼촌인 泉男産은 ‘遼東 朝鮮人’ 으로 그 출자를 적어놓았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을 전후해 자진해서 唐으로 투탁해 간 高足酉와 高玄의 묘지명에는 각각 ‘遼東 平壤人’, ‘遼東 三韓人’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에 묻힌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의 출자 기록에서 주목되는 경우가 있

나온다. 그는 이때 고구려유민들을 隴右道 지역에 徙居시킨 것을 성공적인 정책의 예로 들었다.

다. 유민의 후손들 가운데 高震과 그의 넷째 딸, 그리고 高欽德의 묘지명에는 ‘渤海人’이라 기록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진은 보장왕의 손자이다. 고희덕의 경우에는 최근 새롭게 그 묘지명이 알려진 사람이다. 高欽德(676-733)은 寧遠將軍, 幽州副節度知平盧軍事를 거쳐 右武衛將軍이 되었고 開元 21(733)년 9월 19일에 柳城郡 公舍에서 57세의 나이로 죽었다. 고희덕의 증조부인 瑗과 조부인 懷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建安州都督을 역임했다.

고진과 그의 딸, 그리고 고희덕은 중국의 영토 안에서 시종 생활했기 때문에 발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묘지명에 발해인이라 기록한 것을 보면 당사자나, 그 집안의 사람들, 또는 일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들이 당시 존재하던 발해라는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이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자신들은 고구려인의 후손이므로 발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唐에서 태어나 당으로부터 관직을 받고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열전에 수록될 정도로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고구려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高仙芝, 王毛仲, 王思禮, 李正己 등 당 조정에 참여하여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였던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에는 빠짐없이 ‘高麗人’이라고 그 출자를 명기해 놓고 있다.

어쩌면 이들 유민 3세들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는 오히려 고구려유민이라는 자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점을 상기시켜 주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唐의 분위기가 대단히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상에서는 강제사민되어 온 패전국의 주민에 대한 차별이 엄존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고신지는 石國 정복으로 당 황제의 위상을 고비사막 너머까지 전파하는 공을 세움으로써 중앙조정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정적들로부터 ‘高麗奴’라는 모멸에 찬 욕을 일상적으로 들어야만 했다.

唐에서 태어나 唐의 民으로 살면서 관직을 얻고 唐을 위해 활동을 했지만, 그들은 결국 망국민의 후손일 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뿌리가 당에 패한 고구려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구려 멸망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도 고구려유민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唐으로 간 고구려인들이 모두 漢族으로 융입되었으며, 唐에

대해 ‘亡國’의 한을 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구려인들은 당나라에 통합된 후 당나라의 통일 대업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공로를 세워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까지 하였다.” 고 하면서 泉男生, 高仙芝, 王毛仲, 王思禮, 李正己 등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唐에 패망하여 異域萬里로 強制遷徙된 집단포로의 후손으로서 선조의 땅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신라 聖德王(702-737)의 적극적인 親唐政策과 唐의 적극적인 동방진출 및 안록산의 난으로 대변되는 요동지역의 혼란상 등도 중국 내지로 간 고구려유민들의 귀향의지를 꺾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유민들은 고구려부흥이나 발해로의 귀의라는 비현실적인 방향을 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태어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인 차별과 멸시를 감수하고 노력한 끝에 마침내 입신양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당에서 태어난 고구려유민 3세들의 경우에도 이처럼 원하는 원치 않든 자신들의 出自가 고구려에 있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강제로 집단천사된 고구려유민들의 경우 아주 오랫동안 고구려인이란 자의식을 유지했을 것임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발해를 건국한 사람들이나 신라로 가서 보덕국을 세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 내지로 옮겨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고구려인으로서의 강한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직접 고구려 부흥에 참여했다. 이중에서도 신라로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으로 간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졌다. 당으로 간 사람들은 강제피납된 경우이지만 신라로 간 사람들은 전쟁포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진 귀부한 경우였다.

신라나 당 모두 고구려의 적국으로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의외적인 일이며 그런 점에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그들이 唐이 아닌 신라를 택해 귀부했던 것은 곧 唐보다는 신라에 더 친연성을 느꼈다는 것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친연성이란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근접성만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역사적인 면과 문화적인 측면, 종족적인 측면에서 공유점이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공감대이자 친연성일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는 4세기 중반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4세기에 이르러 신라가 진한연맹체의 맹주국으로 부상하면서 경상북도 전역을 차지한 뒤 더 넓은 지역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자, 백제, 가야, 왜가 동맹을 결성해 신라를 압박했다. 이에 위기

를 느낀 신라는 고구려의 광개토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그에 따라 庚子年(400년)에 고구려의 步騎 5만군이 南征에 나서 가야와 왜 세력을 축출하는 대규모 국제전이 벌어졌다.

이후 신라의 수도와 주요 지역에는 고구려의 군사가 주둔하게 되었고 신라의 중앙 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이전에 신라 땅이었던 순흥과 봉화, 임하, 청송, 영덕, 울진 등의 지역이 이때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고구려의 영향은 단지 정치적인 면, 제도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종교와 문화 등 전반적인 면에서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었다.

놀지왕이 즉위한 이후 고구려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5세기 후반부터는 그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전래된 고구려문화는 신라 문화의 저변에 스며들어 이어지게 되었다.

고구려와 신라의 이런 관계는 광개토왕비에 표현되어 있는 고구려의 천하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광개토왕비문에 등장하는 국가나 정치세력들로는 거란족, 동부여, 숙신, 백제, 신라, 왜가 있는데, 이 가운데 거란은 攻破의 대상이고, 왜는 覬覦의 대상으로만 나온다.

그에 반해 동부여와 숙신은 조공을 바치는 屬民으로 나오고, 백제와 신라는 자국의 臣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천하관 속에 포함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백제와 신라, 동부여와 숙신이 모두 광개토왕이 다스리는 천하 안에 들어있는 대상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백제와 신라는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특히 신라는 더욱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물론 신라가 백제와 나제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도 했고, 돌궐의 침공으로 혼란한 틈을 타 한강유역을 빼앗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신라는 고구려와 밀약을 맺고는 돌연 동맹국이었던 백제를 치고 한강 하류지역까지 모두 차지해버렸다. 6세기 중반 경에도 고구려는 백제보다는 신라와 더 친연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고구려와 신라는 4세기 이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상대였다. 정치적으로 결별한 이후에도 문화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의 영향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많은 수의 고구려인들이 唐이나 다른 제3국 대신 신라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역사적 경험의 공유와 문화의 공

유, 종교적 영향, 종족적 친연성 등 여러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고구려유민들이 신라로 자진귀부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구려유민에 대한 지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유민이 소속된 국가에서 그 계승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唐에서는 고구려유민들을 시종 전쟁포로로 인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지배도 복속민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삼국의 통합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시행했다. 보덕국의 존재와 고구려 유민들을 신라의 중앙군단인 誓幢으로 편제한 것 등이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비록 이런 정책들이 모두 신라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취해진 것이고, ‘一統三韓’이란 구호도 신라가 내건 한낱 명분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측의 고구려유민에 대한 인식이나 지배방식과는 엄연히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간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발해나 보덕국 사람들도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라를 온전히 지켜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계승을 주창하며 일어난 고려의 건국과, 국가 소멸 이후 고려로 들어온 발해유민들의 존재에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동아시아 속의 고구려, 동아시아를 잇는 고리로서의 고구려

고구려사 계승문제를 생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역사에도 흑백논리적 시각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날 어느 한 나라에만 완전히 속한다고 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옛날과 지금의 국경선이 완전히 일치하고, 민족의 소속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의 소속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영토와 주민의 계승을 중요한 조건으로 본다. 하지만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어떤 나라가 이전에 있던 왕조의 영토와 주민을 모두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후계자이고 그 역사의 계승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역사계승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여가 있었던 곳은 지금은 우리 영토가 아니다.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가 모두 부여로부터 기원했다는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여 역시 우리 역사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고조선·고구려·발해의 경우 영토도 이어받았고 역사계승 의식도 가지고 있다. 특히 역사계승의식은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이전부터,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부여에 대한 역사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역사책을 서술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기』 이래 줄곧 이들 나라를 다른 나라로 취급했다. 그들이 편찬한 정사의 본기부분이 아닌 외국 열전 부분에 이 나라의 역사를 배치해놓은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뿐만 아니라 『송사』에는 고려왕조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그 선대가 고구려였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 이후 나온 역사책도 모두 이에 따랐다. 그런데 만주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중국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 갑자기 고조선사와 고구려사가 한국사가 아니고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근거를 대더라도 중국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부여의 역사가 한국사에 속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 이 역사가들이 중국사에 속할 여지는 조금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 역사의 필요성, 역사연구의 목적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 역사를 공부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 자기가 속한 집단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에게도 지금 중국 땅이 된 동북 3성 지역이 옛날에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그 역사를 서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고조선사, 고구려사, 부여사, 발해사는 한민족의 기원, 한민족의 성립, 한국문화의 성립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국사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사를 빼면 한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흐려지게 되고, 한국사 자체를 새로 써야한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한국사에서 뺄 수가 없다. 그런 한편 중국에서도 현재 자기나라 영토인 동북 3성 지역의 과거사를 서술해야만 한다. 즉 한국사에서는 本流史, 中心史로서 만주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역사에 대해 당연히 서술해야 하고, 중국에서도 地域史, 郷土史로서 그 지역의 과거사를 서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고구려사나 그것이 전개되었던 지역이 모두 중국의 것이라며, 현재적 목적 아래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韓·中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한편, 우리들도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민정서상

으로는 中央史, 中心史로서의 韓國史와 鄉土史, 地域史로서의 중국사라는 인식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지나친 민족주의적 정서에 바탕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역사 인식은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것은 자칫하면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상대방의 잘못을 성토힌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으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고립될 우려도 있다.

그러면 고구려사 귀속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목적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또 하나의 원칙은 현재의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재의 국경선은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국제법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다. 역사적인 면에서 현실의 상황을 전면 부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끝이 없는 논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일단은 현실의 국경선을 인정한 상태에서 역사를 서술하되, 잘못된 과정에 의해 성립된 국경선 문제는 다른 절차를 밟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 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할 것 같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또 역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미래를 건설하는데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이웃나라들과 더 나아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적인 면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해야 한다. 고구려나 발해의 경우, 그 영토와 주민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북한, 한국, 중국)들이 함께 그 역사와 문화를 규명해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상호 화해와 협력의 장을 넓혀나갈 수 있고, 그래야만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복원할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 그 인적, 문화적 유산은 남북한과 중국 뿐 아니라 몽골, 터키, 일본에서도 부분적으로 나눠가졌다. 이것은 ‘고구려’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이들 나라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구려의 정신과 문화를 가장 정통으로 계승한 우리나라사람들이 고구려인의 후손들답게 열린 사고, 객관적인 사고로 우리 역사와 주변국과의 관계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조선 고종과 티베트 13대 달라이라마의 국가진로 선택

° 박장배

조선 고종과 티베트 13대 달라이 라마의 국가진로 선택

박장배(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 탐과 시장

日本第一銀行 10圓券 - 新券



제 조 : 일본 대장성 인쇄국
크 기 : 160×93mm

도안(자) : 주합루
발행개시 : 隆熙 3年(1909)1月1日



十章嘎单色纸币正面 (1912)

20세기 초에 한국과 티베트에서 발행된 지폐도안을 보면 각 나라의 처지를 알 수 있다. 대한제국은 경제명맥이 일본세력에게 장악된 형편인지라 지폐 발행자 자체가 일본 제일은행으로 나와 있었다. 티베트의 경우에는 19세기 후반 이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티베트의 관점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화폐를 발행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티베트와 대한제국은 모두 국가적 독립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였다. 양국의 구성원들은 심리적으로는 문명사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든 국가의 목적은 부국강병과 국민의 행복복지일 것이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지리가 정책을 만든다’ 고까지 했다. 최고지도자는 탐 안에서, 즉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국가의 콘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궁전에서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며 제반 정책을 만들어 국가의 진로를 조정하며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한다. 국가의 번영과 발전의 핵심에너지는 국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는 매일 그 나라에서 산출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합이다. 재화와 용역은 시장에서 화폐를 매개로 사회에서 흘러간다. 콩나물 시루의 물처럼 화폐가 흘러가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경제는 성장한다.

19세기말에 조선은 국가적·문명사적 위기 속에서도 ‘대조선’ 을 건설하려고 했

다. ‘제국의 시대’라 불리던 당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마다 ‘대국’을 꿈꿨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새로운 ‘대제국’을 꿈꾸면서도 황룡사 9층탑에 내장된 지정학적 전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구체성은 다소 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주권선을 넘어 이익선을 설정하고 계속 이익선을 확장하는 팽창주의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¹⁴⁾

중국은 몽골제국의 계승자인 청나라의 성공에 힘입어 대중국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중국의 상태는 중화제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조공국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에서는 축소였지만 반독립상태에 있던 변경지대를 근대국민국가의 틀안에 통합해 낼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는 확장이었다.

티베트는 청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가 1912년 중앙티베트 지역이 사실상의 독립을 성취하였다. 티베트는 지속적으로 티베트 권역 전체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大티베트’ 전략이라고 있다. 티베트는 20세기 전반기에 티베트 권역의 전체를 통합하지는 못했고, 티베트 중심부는 대영제국의 세력범위에 속해 있었다. 대영 제국은 당시에 인도 식민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양을 영국의 호수로 삼고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완충지대, 티베트를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로 설정했다. 또한 인도 북부 변경의 네팔, 시킴, 부탄과 아삼을 안쪽 동심으로 삼고,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타이, 티베트를 바깥쪽 동심으로 삼아 인도 식민지를 보호하고자 했다.

1910-12년 무렵의 티베트와 대한제국의 운명은 같았고, 또 1945-51년 무렵에 두 지역의 운명은 또 엇갈렸다. 이런 질문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여기는 역사적 관계 속에서 양국의 리더십의 차이와 국가진로를 자주적으로 개척하려고 했던 두 지역의 역사를 거시적 시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한국과 티베트의 역사적 관계

전통시대 한국인들은 세 차례 정도 티베트인들과 비교적 가깝게 접촉하였다. 그 첫 번째 경험은 唐 제국시대였고, 두 번째는 元 제국 시대였으며, 세 번째 경험은 淸

14) 김종성은 동아시아 주도권의 역사를 초원길 시대, 비단길 시대, 바닷길 시대로 구분하고, 바닷길 시대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바닷길의 개척과 일본의 부각으로 시작된 제3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크게 세 시기로 세분된다. 대륙과 해양의 소강기(제3-1기), 해양의 절대적 우세기(제3-2기), 해양의 상대적 우세기(제3-3기)가 그것이다.” (『‘길’의 역사로 본 동아시아 미래전략 보고서 : 동아시아 패권전쟁』, 자리, 2007, 52쪽)

제국 시대였다. 현재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한국과 티베트 접촉의 최초의 기록은 역시 唐代의 기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羅唐전쟁(670~676)의 ‘국제적 연동성’을 분석한 한 연구는 당시에 신라 주도세력이 ‘국제정세’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적극 이용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¹⁵⁾ 또한 7세기 후반에는 高仙芝 장군과 黑齒常之 장군 등과 같은 한반도 출신의 인물들이 ‘동반부 아시아’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이런 단편적인 교류의 사례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7~8세기에 일어난 토번과 신라의 접촉은 상호 인식의 확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가 몽골족에게 항복하여 원나라의 영향권에 들어간 사태는 화이론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티베트와 고려의 교류는 그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그리고 몽골족의 고려 지배기에서 20세기 이전까지의 어떤 시대보다도 빈번한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토번과 고려가 동시에 원제국의 세력판도에 편입됨으로써 생긴 사태였다. 티베트와 고려의 접촉 내용은 주로 불교적인 것들이었다.

조선시대 식자들의 티베트 인식은 주로 華夷論的 패러다임에 입각한 것이었다. 1780년 베이징에 다녀온 박지원은 “화이사상이라는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그 화이사상을” “신축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론을 보여주고 있다.¹⁶⁾ 박지원은 “천하의 이치를 꿰뚫는 원리”를 제시하고 못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¹⁷⁾ 그의 관심은 “천하의 대세를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¹⁸⁾ 있었다. 이런 관점은 이규경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異端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다. 그것은 당시에 서양세력의 조선 침략 가능성에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¹⁹⁾

조선왕조 500년 동안 드문드문 언급되던 티베트는 한국의 근대시기에는 거의 언급된 바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랄 수 있다.²⁰⁾ 한국인들이 티베트에 대한 정보에서 소외된 상황은 1920년대에 가서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1920년대부터 한국 언론에도 드문드문 티베트 소식이 전해지곤 하였다. 그

15) 徐榮教, 「羅唐戰爭史 研究-國際情勢의 變化와 羅唐戰爭의 推移-」, 東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1.

16) 閔斗基, 「熱河日記」의 一研究, 『歷史學報』 20輯, 역사학회, 1963.4., 90쪽.

17) 신태수, 「熱河日記」에 나타난 연암의 황교관과 세계인식, 『(경북대) 한국의 철학』 17호, 1989.12., 185쪽.

18) 林基中 編, 『燕行錄全集』 56,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296쪽.

19) 元載淵, 『海國圖志』 收容 前後의 禦洋論과 西洋認識, 『韓國思想史學』 17집, 422쪽.

20) 일본 승려 카와구치 에카이(河口慧海; 1866~1945)는 1897년과 1913년에 티베트에 들어가서 티베트 경전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식물표본, 민속자료 등도 함께 수집하였다. 그는 『서장(西藏)여행기』(1904)를 남겼다.

리고 티베트에 대한 인식의 내용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내용의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인들이 티베트를 바라보는 눈, 즉 인식틀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일제하 한국 언론이 다룬 티베트 관계 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여전히 현지 취재에 따른 기사가 아니라 주로 중국, 일본, 영국 등의 언론이 전하는 소식을 ‘중계방송’ 하고 있다는 점이다.²¹⁾ 특히 티베트 관계 기사의 많은 수가 중화민국 정부 주변에서 나오는 소식을 인용한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티베트에 대한 새로운 정보 축적이 시작된 계기는 1959년 3월의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 사건이었다. ‘중공군’에 대항하는 티베트인들의 ‘반공의거’와 ‘티베트의 비극’은 한국의 신문지상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이것은 전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보도는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히 냉전적 시각에 의한 ‘공산침략’ 이미지를 넘어서 또 다른 ‘동병상련’을 느끼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9년 티베트 봉기 이후 한국 신문에 티베트에 대한 기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개방 이후에는 서구 언론에 티베트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면서 그에 비례하여 한국 언론에도 달라이 라마의 동향을 중심으로 티베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 전에는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1989년 달라이 라마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추진되었다. 2000년에는 방한 추진위원회도 결성되었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 여부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 등은 한국인의 티베트 인식틀과 인식내용을 확인해야 할 매우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3. 고종과 13대 달라이 라마의 국가진로 모색

1) 고종 - 황제의 길, 독립자주국의 길

시민들에게 고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역사상식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고종의 인생역정과 정책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제국의 수립과 황제 즉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26대 왕으로 즉위한 고종(1852-1919)은 처음 10년 동안은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왕이었다.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은 동아시아질서가 크

21) 기사의 제목 자체에도 ‘중계방송’이란 말이 들어 있다. 『歷史없는 西藏(上中下) (週刊「런던타임스」)[中繼방송], 『동아일보』, 36.8.1.朝(3)2.~8.4.朝(3)7.』

게 변동하는 가운데 엄혹한 상황에서 적응해야 했다. 여기서 고종이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고종시대는 외세의 압력이 휘둘리는 시기였고 전례없는 개혁이 진행된 시기였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의 세력이 강화되자, 삼국간섭이 일어났고, 일본위신이 꺾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때를 틈타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光武)라 정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고종은 군제 개혁과 창설을 추진하는 등 근대화에 주력하였다. 고종은 국제적으로 동맹세력을 찾지는 못하고, 1904년 2월 23일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정부를 다방면으로 압박하였다. 고종은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하여 이준, 이상설, 이위중 등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였다. 1907년 일본 측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켰다.

고종의 퇴위는 대한제국의 운명이 일본세력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율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한제국은 이미 실질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일본과 대등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고종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런 노력은 자주독립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13대 달라이 라마 - 실질적 달라이 라마의 길, 대티베트국의 길

13대 달라이 라마의 경험도 좌절과 실패라는 점에서 고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도 고종과 마찬가지로 불굴의 의지로 국가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고 애썼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에서 정치와 종교를 아우른 교단국가의 수장이었다. 티베트인들의 전통적인 이해방식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14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달라이 라마가 계속 전생(轉生)하는 존재였다. 이것은 13대 달라이 라마 아왕롭쌍 툽뎨가초(1876~1933)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티베트 정부의 명령으로 13대 달라이 라마의 전기 《기묘한 염주》가 1940년 2월에 완성되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술된 이 전기는 달라이 라마를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티베트 호법신인 쯤래씨(11면 천수천안 관음보살)로 묘사하였다.

달라이 라마 제도가 티베트에 정착된 것은 16세기 후반이었다. 중부 티베트는

1720년에 청조의 지배권 하에 예속되어 조공국에서 좀더 예속성이 강한 번부(藩部)로 전락했지만, 종교적 자율성은 나름대로 유지하였다. 1720년대 이래 1911년까지 티베트는 청조가 구축한 제국질서 속에서 청조가 파견한 주장대신(駐藏大臣)의 감독을 받으면서도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교단국가를 유지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청조가 구축한 제국질서는 영국의 접근으로 위협을 받았다. 영국의 시장개방 요구, 청조와 티베트 정부간의 이견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13대 달라이 라마 아왕롭쌍 툽뎨가초(1876~1933)는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였다. 그는 티베트 불교문명을 수호하려는 티베트인들의 구심점으로 존재했으며, 영국과 중국의 ‘큰 게임’의 틈바구니 속에서 티베트를 자주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한 인물이었다.

① 친정 이전 시기

13대 달라이 라마는 1876년(광서 2년) 6월 27일(티베트력 5월 5일) 해가 막 떠오를 때 라싸의 동남쪽 100 km 거리에 있는 딱뽀(지금의 낭 현) 지역의 랑링라빠라고 부르는 곳의 보통 농가에서 태어났다. 아명은 롱쌍팁캐가초였다. 티베트 정부는 1877년 전례에 따라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 랑뎨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를 12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로 확인하였다. 1878년 1월 8대 판첸 라마는 그를 위해 삭발과 법의 입기 행사를 하고 법명의 간칭을 “툽뎨 가초” 라고 했다.

1879년 6월 14일에 13세 달라이 라마의 즉위식[좌상 전례]이 포탈라 궁에서 정중하게 거행되었다. 좌상 의례 후에 어린 달라이 라마는 전례에 따라 티베트어 읽기와 쓰기, 불경을 공부하였다. 13살 때인 1888년은 13대 달라이 라마의 삶에서 그가 짊어진 시대적 과제가 매우 선명하게 부각된 해였다. 1888년의 제1차 티베트-영국 전쟁(티베트인들은 흙쥐년(土鼠年)전쟁이라고 함)은 티베트군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티베트의 자립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강화시켰다. 이 전쟁을 통해 티베트인들은 국가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청조는 제대로 된 군사적 지원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국경초소를 철거하라고 강요했다. 티베트 정부는 1892년 청조에 군사원조, 관할구역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그 요구는 거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대 달라이 라마는 18세 성년에 접근하고 있었다. 대외적 위기 속에서 13대 달라이 라마는 불교국가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티베트인들의 여망을 한몸에 받고 친정을 시작하였다.

② 친정 시작에서 ‘청조 세력 구축’ 까지

13대 달라이 라마는 1895년 1월 비구계를 받고 티베트 불교의 정수에 대한 학습을 마쳤다. 13대 달라이 라마의 종교적 생애는 전례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생애는 매우 파란만장했다. 13대 달라이 라마는 20세 때인 1895년 8월에 친정을 시작하여 38년 동안 티베트를 통치했다.

13대 달라이 라마는 1888년 제1차 티베트-영국 전쟁(룽투르라 산 전쟁), 1904년 제2차 티베트-영국 전쟁(강제 방어전)을 경험했다. 또 신정(新政) 시기 청조의 개토귀류(改土歸流)와 군사공격을 만났다. 영국군의 공격과 청군으로 공격으로 두 번이나 망명의 길을 떠야 했다. 청은 두 번이나 달라이 라마의 명호를 취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친정을 시작할 때 광서제는 “그대는 역대 달라이 라마와 같이 짐이 천하군주(天下君主)가 되는 것을 도우라” 고 했지만, 청조와는 근본적인 이해충돌의 지점을 갖고 있었다. 13대 달라이 라마는 평생 티베트 문명의 자주적 존속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상대는 티베트 내부의 분파들과 함께 청조(후의 중화민국)와 영국 세력이었다.

13대 달라이 라마가 떠맡은 책무는 사실 티베트 사회를 재구성하여 20세기 현대 국가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티베트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는 티베트 불교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개혁도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국의 ‘패권전략(The Great Game)’ 패러다임, 특히 인도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한 동심원 전략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패러다임 속에서 ‘불교국가’ 라는 패러다임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

영국 측은 티베트가 자유로운 통상을 거부하고 이전의 조약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1904년 3월 제2차 티베트-영국 전쟁을 일으켰다. 영국 원정군의 목적은 티베트와의 자유로운 무역, 그리고 인도 식민지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대의 확보,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견제 등이었다. 젊은 달라이 라마는 러시아의 원조를 기대하며 외몽골로 피난을 떠났다. 그러나 러시아의 원조를 얻지 못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1908년 8월 베이징으로 가서 서태후와 광서제를 만났다.

태후와 황제를 만난 자리에서 13대 달라이 라마는 5대 달라이 라마의 전례에 따라 주장대신을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동부 티베트에서 자오얼핑이 추진하고 있는 개토귀류와 중부 티베트에서 장인탕이 추진하고 있는

신정 개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이 만남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조가 이전과는 달리 훨씬 강력한 직접 통치를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티베트로 돌아왔다.

1909년 겨울 청조는 티베트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쓰촨의 신군을 라싸로 보냈다. 1910년 2월 청조의 육군이 라싸에 진주하자, 티베트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젊은 달라이 라마는 또다시 망명을 길에 나서야 했다. 청조는 달라이 라마의 명호를 취소하였다. 영국의 인도식민지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는 불교성지를 순례하기도 하고 인도식민지의 관리들과 회담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티베트 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1911년 10월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 청조 육군에게 보급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의 봉기가 발생했다. 이 내부 봉기와 1만 여명의 티베트 군의 반격으로 청조 군대는 티베트에서 축출되었다. 두 차례의 군사적 공격과 두 차례의 망명을 겪어야 했던 달라이 라마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다. 그는 외부의 군사적 공격을 막기 위하여 백방으로 움직였고 그 결론은 독자적인 불교국가의 수립이었다. 달라이 라마는 과거 일각에서 비판한 것처럼 단순히 ‘영국인의 주구’가 아니라 티베트의 안전과 자결을 추구한 인물이었다.

③ 독립 이후의 시기

동부와 동북부 티베트를 제외한 티베트는 20세기 전반기에 40년동안 사실상의 독립국으로 존재하였다. 티베트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주로 중국학계는 티베트가 독립국 지위를 갖지 못하였다고 본다. 반면에 티베트의 독립성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티베트가 독립국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측은 티베트의 완충국 상태에 만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해혁명의 와중에서 달라이 라마를 수반으로 하는 티베트인들은 한인(漢人)을 추방하고 ‘독립’을 선택하였으나, 새로 구성된 중화민국 정부는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民国시기에 동부티베트에서 중국과 티베트 사이에 3차례의 대규모 충돌을 야기하였다. 이 충돌의 티베트측 최고지도자는 13대 달라이 라마였다. 이 전쟁의 무대는 주로 동부 티베트인 캄 지역이기 때문에 캄 전쟁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티베트군은 ‘위대한 5대 달라이 라마’의 시절을 재현하려는 13대 달라이 라마의 이상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그것은 1920년대에 티베트 내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3대 달라이 라마가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불교세력과 귀족세력을 강력한 현대국가의 통치력 속에 용해시켜야 했지만, 달라이 라마의 가장 큰 통치기반은 바로 그 세력들이었다.

13대 달라이 라마는 1933년 12월 17일(티베트력 10월 30일) 늦은 7시 반에 향년 58세, 집권 38년으로 운명했다. 58년 동안의 13대 달라이 라마의 생애는 티베트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전임 달라이 라마들이 티베트 내부의 정치사정과 청조의 견제로 대부분 실권을 갖지 못한 상징적인 통치자였다면, 13대 달라이 라마는 달랐다. 13대 달라이 라마는 외세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시기마다 ‘덜 나쁜 외세’를 이용하여 티베트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4. 맺음말 -새로운 탐과 시장

경제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재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더 나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해야 할 때일 것이다. 유럽이 유럽연합을 건설했듯이 동아시아도 동아시아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에서는 오랫동안 경제력, 문화력 등으로 중화제국이 역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현재 제국의 유산, 중일 경쟁, 내셔널리즘의 힘 등 다양한 요소가 동아시아의 통합을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종과 13대 달라이 라마는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격렬한 각축의 시기에 국가적 진로를 자주적으로 모색하였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시대는 전통 질서가 무섭게 붕괴하고 새로운 질서는 난폭한 시대였다. 그들은 평화 공존만이라도 얻고자 했다. 고종은 러일전쟁 시기에도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으나 이러한 소원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앞으로는 달라야 한다면, 고종과 13대 달라이 라마의 경험은 더욱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속의 한·일 관계

근초고왕과 광개토왕시대를 중심으로

° 연민수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

- 근초고왕과 광개토왕시대를 중심으로 -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백제의 국제관계는 4세기 이후에 본격화된다. 이것은 백제와 주변제국간의 영토분쟁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성시대의 국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북으로의 고구려와의 전쟁, 서로는 중국의 동진과 남송과의 통교, 남으로는 왜국과의 국교의 개시 및 군사적 동맹관계이다.

4세기후반 근초고왕에서 5세기후반 개로왕대에 이르는 1세기간은 백제사에 있어서 격동기였다. 특히 근초고왕대에는 백제사에 있어서 가장 역동성을 보인 시대로 평가되고 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우위성 확보, 중국의 요서지방 진출, 남으로는 전남지역, 가야방면으로까지 진출하고 나아가 동진 및 왜국과도 국교를 맺는 등 국가적 기개를 떨친 시대로 이해한다. 여기에 일본에 남아있는 칠지도는 왜국과의 국교개시의 상징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어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다.

4세기말에서 5세기초의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은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흔들어 놓았고, 고구려 우위의 국제정세가 초래하였다. 광개토왕비문이 남긴 정보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문의 신묘년조의 해석 등 당시의 실태에 새롭게 접근한다.

1. 근초고왕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백제와 고구려의 충돌이 시작되는 것은 양지역의 완충역할을 했던 낙랑군, 대방군이 4세기초 고구려에 의해 접수되면서이다. 이후 양국의 군사적 충돌은 빈번해지고 1세기 이상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근초고왕시대는 왕세자 근구수도 군사지휘관으로 전투에 참가하는父子 활약이 두드러진다. 근초고왕24년(369)에 고구려가 보기(步

騎) 2만의 병력으로 쳐들어오자 근구수가 황해도 치양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5천 명을 사로잡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371년에는 근초고왕 부자가 3만의 병력으로 평양을 공격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을 죽임으로 몰아넣는다. 이 사건으로 고구려의 백제에 대한 원한은 깊어지고 이후 4세기말 광개토왕의 대백제 보복전을 야기시킨다. 백제는 고구려전의 승리로 이듬해 중국 남조인 동진(東晉)에 사절을 보내어 높아진 백제의 위상을 과시하며, ‘진동장군령 낙랑태수(鎭東將軍領 樂浪太守)’의 작호를 받는다.

한편 『일본서기』 신공기에는 백제의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사료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관련사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으면서 백제사를 복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현실이다. 신공기46년에서 52년조에 이르는 기사는 백제와 왜국의 국교개시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지만, 그 중간에 왜군의 신라격파, 가야7국평정기사, 전남일원의 마한지역 병합기사가 나오고, 왜군이 점령한 마한의 일부지역은 백제에 할양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백제는 왜국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히 조공을 바치고 복속한다는 표시로 칠지도를 헌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칠지도는 일본의 이소노카미신궁에 실물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신공기의 기록에 대해 한일 간의 견해의 차이는 물론 한국학계에서도 전공자에 따라 제설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의 전통적 해석인 스에마츠 야스카즈(末松保和)에 따르면, 백제는 367년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열고, 백제의 요청에 따라 369년 기사년에 일본은 대규모의 출병을 단행,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대한경략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 출병의 결과로 백제는 국책으로서 일본에 대해 부용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또한 가야 제국을 충칭하는 이른바 임나(任那)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임나의 성립이란 일본의 직접지배체제하에 들어간 임나가라를 중심으로 한 韓 제국을 가리킨다. 더욱이 일본은 신라도 부용화시켜 임나·백제·신라를 3자 합일해서 고구려와 대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백제·신라에의 부용관계, 임나에 대한 지배체제 등은 사료 비판이란 역사연구의 기초 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일본서기』의 논리에 의해 그대로 논지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천관우는 신공기의 가야7국 평정이라는 것은 실은 백제의 가야진출을 말하는 것이라는 기본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백제가 이 당시 가야지역에 진출하여 이곳을 지배권 하에 두었다는 것을 기타의 사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서기』에 대한 사료조작은 연구자의 주관

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주도형의 해석이 그러하듯이 백제주도형의 해석 또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고대사학계에서의 신공기에 대한 해석은 천관우의 관점을 계승하여 일본군의 행위를 백제로 도치하여 백제의 낙동강유역의 가야방면 및 전라도 지역으로의 진출로 본다. 특히 신공기 후반부의 일본군이 고원진을 거쳐 침미다례를 도륙하고 비라·벽중·포미지·반고 등 4읍을 점수했다는 기록으로부터 백제 근초고왕 부자에 의한 한반도남부의 경략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 지명의 위치는 고원진은 강진, 벽중은 보성, 포미지는 나주 등지로 비정되고 비리, 반고는 대체로 전남일원으로 보고 있다. 4세기후반대의 백제의 전남지방의 영역화설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4세기 후반대에 백제가 전남지방을 백제의 통치체제에 편입시켰다는 주장은 신공기 사료에 대한 과잉해석이다. 최근에는 백제와 영산강유역 세력 간의 정치적 공납 관계를 상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록은 가야7국평정기사와 더불어 후대의 사실의 굴절, 윤색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근초고왕 부자가 남방으로의 진출했다는 동년 고구려 고국원왕이 2만의 병력으로 공격한 치양전투에서 근초고왕이 왕자 근구수를 보내 고구려군을 격퇴하고 있다. 같은 시기 동일 인물에 의해 남과 북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한다. 고구려와의 치열한 전쟁상태가 계속 전개되는 와중에서 백제왕 부자가 이끄는 왕도의 주력부대가 남방으로의 원정길에 나서는 것도 상황론적으로 부자연스럽다. 백제에 있어 고구려와의 전쟁은 국가의 존망과 관계있는 일이고, 남방으로의 진출은 국력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다. 즉 남방인 전라도지방은 백제에 있어 상대적 안전지대이다. 적어도 신공기의 백제의 남방으로의 군사행동은 신뢰할 수 없다. 게다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관련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근초고왕대의 남방으로의 진출은 근초고왕26년(371)에 3만의 병력을 투입하여 고국원왕을 죽음으로 몰아낸 평양성전투에 비견될 만한 대사건이다. 실제의 일이라면 기록의 잔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지만, 국내의 어느 문헌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은 신공기 52년조의 백제와 왜국의 국교성립 기사의 절정에 해당하는 칠지도현상기사에 대해 살펴보자. 신공기의 칠지도 관계기사는 현존하는 실물 칠지도에 의해 사료적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기사이다. 신뢰도가 높은 만큼 이 기사에 대한 사료적 검증은 극히 빈약하다. 우선 고고학적 측면에서 칠지도와 친연관계에 있는 유지철기(有枝鐵器)의 편년이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는 점, 칠지도와 함께 왜국으로 전래

되었다는 칠자경(七子鏡)이 무령왕릉과 일본에서 출토된 원형경(圓形鏡) 등의 칠수경(七獸鏡)에 해당된다는 점으로부터 6세기 초 백제 무령왕대에 남조·백제 문물이 활발히 왜국으로 전래되었을 당시 칠지도도 칠자경 등과 함께 전해졌을 것이다.

백제와 왜국의 국교 성립과정의 기사만이 남는데, 그렇다면 이 기사는 사실일까. 바꾸어 말하면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당시 백제가 왜와 처음으로 국교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만한 사료가 『일본서기』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일본서기』에만 있는 기록이라고 해서 신용할 수 없다고 하는 가정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서기』 신공기의 백제왕력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그것은 놀라운 일치율을 보이고 있어 양 기록의 원전은 동일 계통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광범위한 내용에 걸쳐서 백제 관계의 원전 문헌으로서 공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신공기 자체가 백제측 기록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고 국교 성립 기사가 백제측 기록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하면 당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도 채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삼국사기』 편자에 의한 사료 선별과정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국교성립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왜 관계기록은 아신왕 6년(397)에 “왕이 왜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삼았다”는 것이 최초이다. 그 이전에 『일본서기』에 나타난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관계 기록이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신왕 6년조의 기사는 『일본서기』 응신기 8년(397)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더욱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4~5세기 단계의 신라와 왜국의 외교관계 기사가 빈도 높게 실려 있는 것을 보면 백제본기가 일부러 백제·왜 간의 국교성립 기사를 제외시킬 까닭이 없다고 보인다. 이 신공기의 칠지도 관련 기사를 비롯한 한일관계 기록은 웅진시대전반인 5세기말에서 6세기초의 사실을 투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근초고왕대의 백제의 요서지방 진출과 백제군 설치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고 통설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진대(晉代)에 일어난 사건이 『송서(宋書)』와 『양서(梁書)』에 나오면서 정작 『진서(晉書)』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백제의 요서진출은 근초고왕대 사건으로 나오지만 당시 북으로는 고구려와의 끊임없는 전쟁상태였고, 더구나 남방으로 영역확대를 꾀하고 있던 시기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근초고왕이 수군의 주력을 빼내어 서해를 건너 요서지방을 공략했다는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요서지방이 무주지나 공한지가 아닌 이상 국내 전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시도했다는 점은 백제사의 전개과정에 적지 않은 의문을 갖게 한다. 중국 사료에 있다고 그대로 믿는다면 『송서』 왜국전에 나오는 한반도 제국명이 관칭된 왜왕의 작호 문제, 수서 왜국전에 백제와 신라가 왜국을 대국으로 섬긴다는 내용도 그대로 믿어야 한다. 한반도 내부의 발전과정, 상황론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고구려 광개토왕의 등장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여 놓았다. 한반도에서의 백제 우위의 국제관계를 고구려 중심의 질서로 바꾸어 놓았다. 광개토왕비는 당시의 국제관계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광개토왕비는 모두 1775개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동비의 내용은 모두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이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왕의 세계(世系), 중간 부분이 광개토왕의 군사적 업적,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왕릉의 묘지기에 관한 기록인 수묘인(守墓人)에 관한 규정이다. 그 중에서 중간 부분은 광개토왕이 생전에 사방에의 정토에서 이룩한 군사적 위업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崗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라는 시호가 말해주듯이 당시 고구려 영토적 판도를 최대로 이룩한 왕으로서 유명하다.

고구려의 백제에 대한 보복전은 396년 서해를 남하해 한강유역으로 진입하여 당시의 백제의 왕도였던 한성, 현재의 풍납토성을 공략하여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낸다. 이때 백제 아신왕은 영원히 고구려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고구려에 충성을 맹세한다(「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이때 고구려는 백제의 영역 58개 성과 700개 촌락을 접수하고, 왕의 동생, 대신 등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근초고왕 이래 대고구려 우위를 점했던 상황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397년 백제 아신왕은 왕세자 전지를 왜국에 보내어 군사요청을 한다. 왜는 백제의 요청을 받아 한반도의 전란에 휘말리게 된다. 이때 백제와 왜국의 군사동맹이 성립하였다. 백제의 대고구려 대책은 우선 고구려의 예속에 들어가 측면에서의 위협이 되고 있는 신라를 공격할 목적으로 399년, 400년에 왜병과 함께 안라가야 및 임나가라 등 가야제국을 신라전선에 투입하였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에 구원병을 요청하였고, 고구려는 백제가 맹서를 어기고 왜와 통하였다(「百殘違誓與倭和通」)고 하여 5만의 병력으로 신라에 침공한 백제의 연합군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신라의 동서 동맹군과 백제-가야제국-왜로 이어지는 남방연합군이라는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국제관계는 5세기대에 계속되어 간다.

신라공략에 실패한 백제는 다시 왜병과 함께 404년에 고구려의 대방계를 공격한다. 이때의 상황은 광개토왕비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和通殘兵□石城, □連船□□□, 王躬率□□, 從平壤□□□鋒相遇, 王幢要截湯刺倭寇潰敗, 斬殺無數). 여기서 「連船」의 주체는 백제와 연합군이다. 양국의 연합수군은 선단을 이끌고 서해안의 백제령으로 부터 발진하여 북상, 대방계에 상륙해서 평양성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백제왜군이 육로가 아닌 해로를 선택했던 것은 지상전에서는 고구려의 기마병단에 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로를 통해 고구려의 군사기지의 심장부인 평양성을 파괴하는 일에 의해 승기를 잡으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구려는 곧 반격을 개시 광개토왕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남하하여 대방계 방면에서 백제왜연합군을 「潰敗」시켜 버린다.

백제의 고구려 공격은 404년에 재개된다. 비문의 永樂17년조에는 치열한 전투장면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는 5만 병력은 무수한 백제군을 살해했으며, 획득한 갑옷만도 1만여벌이 이르고 6개의 성을 공략하고 있다(十七年丁未敎遣步騎五萬, □□□□□□□□, 王師[四][方]合戰, 斬殺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稱數, 還破沙溝城 婁城 牛城 □□□□□城). 고구려 광개토왕대에 백제가 당한 피해는 너무나도 컸다. 백제는 396년 전투에서 상실한 광역의 城, 村을 탈회하기 위해 2차에 걸쳐 고구려와 치열한 교전을 벌였지만, 그 숙원은 이루지 못하였다. 비문에 기록된 광개토왕의 일생의 전과인 「凡所攻破城六十四, 村一千四百」의 중에서 64성 모두와 1400촌의 반과 백제전에서 획득했다고 하는 것은 흥미깊다. 이것은 남방에서의 고구려의 주적은 백제였기 때문이다. 4세기 후반 반세기에 걸친 고구려의 백제에 대한 굴욕적인 패배는 광개토왕대에 반전되어 즉위와 동시에 개시된 백제정토전은 철저한 파괴, 보복 그것이었다. 고구려가 수묘인을 징발한 「신래한인(新來韓滅)」의 36개 지역 중, 그 상당부분이 백제 지역에서 공파한 점령지로 부터의 포로들이었다는 사실은 남방전투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즉 고구려의 점령지정책 백제와 그 외의 지역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백제에의 출정에 의해 획득한 64성, 700촌은 그대로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한 반면, 신라와 가야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에 군대를 주둔시켜 통치권을 행사하는 간접방식

인 것이다. 고구려가 백제를 백잔(百殘), 잔국(殘國)으로, 백제왕을 잔주(殘主)라고 하는 멸칭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분노를 잘 반영해 주고 있고, 이와 같은 인식은 고구려의 통치권행사의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광개토왕비문의 신묘년조에 보이는 왜가 백제, 신라 등을 지배했다는 기록에 대해 살펴보자(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백잔(백제)·신라는 원래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어서 조공해 왔다. 그런데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백제)·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문제는 비문의 내용이 실제의 상황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묘년기사는 광개토왕의 전쟁기사 중에서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백제, 신라 등 남방에 대한 전쟁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토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비역사적인 허구의 문장이다.

그럼 왜 고구려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문장을 광개토왕의 출정의 이유로서 기록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당시 고구려인의 역사인식, 이데올로기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 그것은 중화사상(中華思想)의 영향으로 유교적 덕치주의라는 정치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중화의식은 고구려의 주변제국에 대한 왕성한 정복활동의 결과 배양된다. 전쟁이 일단락된 후 고구려에서는 주변제국에 대해서 제각기 다른 평가를 내린다. 신라·백제·동부여는 원래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규정하고, 속민은 조공의 대상으로 거란의 일족인 패려는 정벌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왜에 대해서는 영토적 정벌이나 조공, 속민의 대상이 아닌 단지 응징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적 세계질서 속에서 왜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고구려측에서는 처음부터 왜를 이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고구려의 세계질서 속으로 뛰어들어 이 질서를 흔들어 놓은 집단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가 400년, 404년의 2차에 걸쳐 왜병과의 전투 경험을 통해 얻어진 대왜인식의 결과라 생각된다. 그동안 왜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고구려로서는 한반도남부에 출현한 왜병이 이질적이고 고구려의 남방경영의 방해자로서 인식되어졌던 것이다.

고구려측의 중화논리에서는 광개토왕의 업적을 현창하는 훈적비로서의 가치기준을 정복군주상을 넘어서는 도덕적 군주의 이미지로 승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덕적 군주란 주변제국을 군사적으로 정벌하면서 이들 지역이 고구려왕의 덕화가 미치어 고구려적 세계질서대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남방에서의 백제와 신라는 당연 고구려의 세계질서에 들어와야 될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경우는 항상 고구려에

대항하고 피해를 입히고 있다. 더욱이 왜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공격만을 기술하는 것은 훈적비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남방경영을 정당화하는 필법으로서 왜가 고구려의 속민인 백제·신라를 왜의 신민으로 삼았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기록을 삽입하였다. 신묘년은 광개토왕이 즉위한 해이다. 이 해로부터 이질적 집단인 왜가 고구려의 속민이 되어야 할 남방의 영역을 침입하여 왜의 신민으로 했다고 설정해 놓은 것은 고구려가 이들 지역을 왜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전쟁의 명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다. 이리하여 이후의 남방전쟁을 고구려의 세계질서를 회복시키는 성전(聖戰)으로서 규정했던 것이다. 즉 신묘년기사는 고구려의 남방정토를 정당화, 합리화시키기 위한 설명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능비의 제1면을 왕도 국내성으로부터 압록강을 가로질러 남방으로 향하게 배치한 것도 고구려의 남방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 1 :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4세기 백제의 발전



3. 삼국의 발전과 통치체제

백제는 4세기중반 근초고왕 시기에 크게 발전하였다. 이때의 백제는 마한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였다. 또 낙동강유역의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정복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지방과 일본의 규슈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였다. (49쪽)

【자료 2 七支刀銘】

□□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阳造百练鍔七支刀世辟百兵宜复供侯王□□□□作
先世以来未有此刀百济王世子奇生圣音故为倭王旨造传示後世

◎칠지도의 발견

石上神宮의 宮司 菅政友 1874년 석상신궁의 소장품 수리중에 발견
「大和國石上神宮寶庫所藏七支刀」(『菅政友全集』, 1907)

【자료 3 廣開土王陵碑文】

第 1 面

1	10	20	30	40
---	----	----	----	----

1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命駕
2 巡幸南下列由夫餘奄利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鄒牟王爲我連葭浮龜應聲卽爲
3 連葭浮龜然後造渡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不樂世位因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罷履
4 龍首昇天顧命世子儒留王以道興治大朱留王紹承基業逕至十七世孫國置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5 二九登祚號爲永樂大王恩澤洽于皇天武威振被四海掃除□□庶寧其業國富民殷五穀豐熟昊天不
6 弔卅有九寔駕棄國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於是立碑銘記勳績以示後世焉其詞曰
7 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稗麗不□□人躬率往討過富山負山至鹽水上破其三部洛六七百營牛馬群
8 羊不可稱數於是旋駕因過襄平道東來□城力城北豐五備海遊觀土境田獵而還百殘新羅舊是屬民
9 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軍討伐殘國軍□□
10 南攻取寧八城白模盧城各模盧城幹氏利城□□城閣彌城牟盧城彌沙城□舍葛城阿旦城古利城□

11 利城雜珍城奧利城勾牟城古模耶羅城頁□□□城□而耶羅城瑑城於利城□□城豆奴城沸□□

第 2 面

1 10 20 30 40

1 利城彌鄒城也利城太山韓城掃加城敦拔城□□城婁賣城散那城那旦城細城牟婁城于婁城蘇灰
2 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城林城□□□□□利城就鄒城□拔城古牟婁城閏奴城貫奴城彡穰
3 城曾□城□□盧城仇天城□□□□其國城殘不服義敢出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遣刺迫城□□
4 侵穴□便圍城而殘主困逼獻出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跪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恩赦先
5 迷之愆錄其後順之誠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將殘主弟并大臣十人旋師還都八年戊戌教遣偏師觀
6 肅慎土谷因便抄得莫羅城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自此以來朝貢論事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
7 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白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恩慈稱其忠誠
8 □遣使還告以□計十年庚子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
9 □侵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安羅人戍兵□新羅城□城倭寇大潰城大
10□□盡更□□安羅人戍兵滿□□□其□□□□□□□言

第 3 面

1 10 20 30 40

1 □□□□□□□□□□□□□□□□□□□□□□□辭□□□□□□□□□□潰
2 □□□安羅人戍兵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
3 請□□朝貢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和通殘兵□石城□連船□□王躬率□□從平穰
4 □□鋒相遇王幢要截濫刺倭寇潰敗斬煞無數十七年丁未教遣步騎五萬□□□□□□□□師
5 □□合戰斬煞蕩盡所獲鎧鉀一萬餘領軍資器械不可稱數還破沙溝城婁城□住城□城□□□那
6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城國駭□□□□□□
7 □□王恩普覆於是旋還又其慕化隨官來者味仇婁盧卑斯麻鴨盧耑社婁鴨盧肅斯舍鴨盧□□□
8 鴨盧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守墓人烟戶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東海買國烟三看烟五敦城
9 民四家盡爲看烟于城一家爲看烟碑利城二家爲國烟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皆連二家爲看烟俳婁
10 人國烟一看烟卅三梁谷二家爲看烟梁城二家爲看烟安夫連廿二家爲看烟改谷三家爲看烟新城三
11 家爲看烟南蘇城一家爲國烟新來韓穢沙水城國烟一看烟一牟婁城二家爲看烟豆比鴨岑韓五家爲

- 12 看烟勾牟客頭二家爲看烟求底韓一家爲看烟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廿一古模耶羅城一家爲看烟
 13 炅古城國烟一看烟三客賢韓一家爲看烟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巴奴城韓九家爲看烟白模盧
 14 城四家爲看烟各模盧城二家爲看烟牟水城三家爲看烟幹氏利城國烟一看烟三彌鄒城國烟一看烟

第 4 面

- | | | | | |
|---|----|----|----|----|
| 1 | 10 | 20 | 30 | 40 |
|---|----|----|----|----|
- 1 七也利城三家爲看烟豆奴城國烟一看烟二奧利城國烟一看烟八須鄒城國烟二看烟五百
 2 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太山韓城六家爲看烟農賣城國烟一看烟七閨奴城國烟二看烟廿二古牟婁
 3 城國烟二看烟八塚城國烟一看烟八味城六家爲看烟就咨城五家爲看烟彡穰城廿四家爲看烟散那
 4 城一家爲國烟那旦城一家爲看烟勾牟城一家爲看烟於利城八家爲看烟比利城三家爲看烟細城三
 5 家爲看烟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教言祖王先王但教取遠近舊民守墓洒掃吾慮舊民轉當羸劣
 6 若吾萬年之後安守墓者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令備洒掃言教如此是以如教令取韓穢二百廿家慮
 7 其不知法則復取舊民一百十家合新舊守墓戶國烟卅看烟三百都合三百卅家自上祖先王以來墓上
 8 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差錯唯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
 9 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의거의 역사성

° 장석흥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의거의 역사성

장석흥(국민대학교)

1. 머리말

안중근은 “세계의 대세를 짐작하고 해외에서 신호흡을 하는 자 어찌 무모하게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있을 것인가. 이등박문의 정책이 동양평화에 지대한 해를 끼치는 일에 一身一家를 돌볼 여지가 없이 결행한 것²²⁾” 이라며, 의거의 명분과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등박문과 개인적 원한이 없으며, 만약 개인적 원한으로 이등박문을 처단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했다.²³⁾ 그리고 ‘세계 대세를 짐작하던’ 그가 이등박문을 처단한 것은 한국 독립만이 아니라 이등박문의 조국인 일본과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의거의 진실은 당장에 어렵다고 한다면 훗날에라도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안중근 의거는 이등박문 처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등박문 처단 후 국제재판에서 일제의 한국침략 실상을 세계에 알려 동양평화를 지키는 것이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1909년 10월 26일 의거현장에서 한국말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고 ‘우라, 까레야’라 외치고 자진 체포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안중근은 의거를 성공리에 결행했으나, 동양평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원대한 목적은 일제의 불법재판에 의해 차단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안중근은 5개월 여의 옥중 투쟁에서 보여준 한국 독립의 철학, 그리고 ‘동양평화론’의 집필 등을 통해 의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뚜렷이 남겼다. 안중근 취조를 담당한 일본인 검찰관 조차 ‘동양의 의사’라 칭했듯이, 옥중에서 발휘한 안중근의 신념은 20세기 초 제국주의가 판치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등

2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6, 1976, 443쪽.

23) 「청취서」 『21세기와 동양평화론』, 국가보훈처, 1996, 51쪽.

불이 되었다. 때문에 동북아 평화를 모색해가는 오늘날, 1백년 전 안중근 의거는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안중근 의거는 중국 땅 만주를 무대로 러시아·일본을 비롯하여 서구 열강이 패권을 놓고 각축하던 상황에서 만주 분할점령을 위해 하얼빈을 찾은 일제 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을 처단한 국제적인 대사건이었다.²⁴⁾ 당시 만주는 대륙 팽창의 야욕에 불타던 일제 뿐 아니라, 러시아·미국·영국 등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가 뒤엉키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곳이었다. 의거가 일어나던 무렵은 러일전쟁 후 만주지역의 독점적 지배를 위해 러시아와 일본의 야합이 최정점에 이르던 때였다. 때문에 안중근 의거는 동북아와 세계를 진동시키는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여기에서는 만주지역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커다란 흐름에서 안중근이 내세운 동양평화사상의 본질과 의미를 규명하고, 이등박문의 하얼빈행이 갖는 침략성과 안중근 의거가 지닌 성격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 20세기 초 만주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러일전쟁 후 러일 양국의 각축은 한국에서 만주로 비화되어 갔다. 러일전쟁은 한국의 패권만을 놓고 쟁패한 것이 아니었다. 만주지역은 러일 양국의 팽창 과정에서 최대 접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때문에 미국의 중재로 러일전쟁이 종전되었으나, 러시아와 일본 모두 만주지역에 대한 이권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러일전쟁 당시 미국이 일본을 지원한 것은 만주지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려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20세기 초부터 만주에 관심을 쏟아온 미국은 러일간의 세력 균형과 그에 의한 상호견제를 통해 만주지역 침투를 꾀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당초 계산과는 달리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던 러일이 연대하면서 미국을 제지하고 나섰다.²⁵⁾

러일 양국은 만주지역에서 군대를 1907년 4월 15일까지 주둔케 하는 군사적 합의를 이뤄냈으며, 일본은 남만주철도와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 2개 사단을 주둔시켰다.²⁶⁾ 이러한 러일 양국의 합의에는 당사국의 이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독일 팽창을 저지하려는 프랑스·영국·러시아의 3국동맹체제, 영일동맹 등이 배경으로 작

24) 신용하, 「안중근의 사상과 의병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참조.

25) 이창훈, 「만주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중국연구』, 대륙연구소, 1994, 147-155쪽.

26) 성황용, 『동양근대외교사』, 명지사, 1992, 348-349쪽.

용하기도 했다.²⁷⁾

그처럼 만주에 대한 열강의 이해는 변화무쌍했다. 일본은 미·영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결국 1906년 5월 만주지역에서 군정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²⁸⁾ 이무렵 일본은 러시아를 제1의 가상 적국으로 삼아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갔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1907년 2월 미국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 협상에 들어가 동년 6월 ‘동청철도와 남만주 철도 사이의 경계와 접속에 관한 의정서’, 7월 28일 ‘통상조약 및 어업조약’ 등을 체결한데²⁹⁾ 이어 7월 30일 제1차 러일협약을 맺기에 이르렀다.³⁰⁾ 그리고 한국에서는 헤이그 밀사를 구실로 삼아 광무황제를 1907년 7월 18일 강제 퇴위시키고, 7월 24일 정미조약을 강제 체결하면서 한국의 행정권과 입법권을 통감부가 장악해 갔다.

안중근이 망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외 망명을 단행하는 것도 이무렵의 일이었다. 안중근이 북간도로 망명할 무렵 만주지역의 정세는 간도문제로 더욱 복잡하게 얽혀져 갔다. 일본은 만주침략의 구도아래 한국이 영유권을 내세우던 간도문제에 깊은 관심을 내보였다. 조선통감부는 간도를 한국 영토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간도침략을 단행하였다. 1907년 4월 간도파견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제1차 러일협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루다가 제1차 협약이 맺어진 직후인 1907년 8월 19일 파견대를 파견하여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를 설치한 것이다.³¹⁾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의 설치는 곧바로 청과의 갈등을 야기시켰다. 청은 간도파출소의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기관 길림변부독변을 신설하고 2천명의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때 일본은 과거 대한제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간도지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이 두만강을 청과의 국경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27) 최문형,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2001. 이 무렵 유럽 정세는 터키제국에 접근하여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독일의 3B정책을 막기 위해 프랑스·영국·러시아 3국동맹체제가 이뤄졌고, 일본은 영일동맹에 의해 3국협상 편에 서게 되었다.

28) 일본은 1906년 5월 ‘만주문제협의회’를 소집하여, 1) 만주의 일본 군정이 미국, 영국 등 열강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2) 그 영향이 간접적으로 한국에 파급될 우려가 있으며, 3) 일본군의 만주점령은 포츠머스조약 제3조에 위배되며, 이를 방지할 경우 만주뿐아니라 중국의 인심이 반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성환,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대한정치학회보』 8집 1호, 2000년 여름, 249-250쪽).

29) 러시아와 만주에서의 철도의 경계선과 이익권의 구분, 통상 및 어업문제 등에 합의한 이후 일본의 한국 병합으로의 행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동아시아 근현대사』, 77-78쪽.

30) 中山治一, 「帝國主義政策の展開との國際關係再編成」 『日本外交史』 1(信夫清三郎 편), 동경, 1974, 223-225쪽. 비밀협약의 주요 내용은 만주에서 양국의 이익범위 확정, 러시아가 한일의 특수관계를 승인, 일본이 외몽고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이익을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31) 일본외무성 편, 『일본외교사년표 및 주요문서(상)』, 원서방, 1987, 245-248쪽.

한국에서 간도관리사를 파견하여 한인들을 보호해 왔다는 점 등을 들며 한국의 영유권적 입장에서 반박하였다.³²⁾ 즉 한국의 영유권이 있는 곳이라 파출소를 설치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청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고, 그 일로 청을 자극시키는 것이 이권 획득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1908년 4월 간도문제 방침을 전환하였다.³³⁾ 일본은 한인의 보호를 담보로 청국과 교섭하는 한편 부득이할 경우 도문강을 국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에게 간도영유권은 2차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을 빌미로 이권을 쟁취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만주정세는 미국이 가세하면서 혼미를 더해 갔다. 러일의 독점적 체제에 강력하게 도전한 미국이 일본을 약화시키기 위해 봉천순무 당소외에 2천만 달러의 차관을 추진하는 등 만주지역 세력 확대에 힘을 기울여 간 것이다. 미일 양국의 대립이 표면화 되자, 청은 러일 양국이 철수한 만주지역에 3성 총독을 배치하고, 일본의 남만주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자본을 도입한 철도건설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³⁴⁾ 한때 마일간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일개전설도 나돌 정도였으나, 1908년 11월 루트-다카하라 협정이 체결되면서 어느 정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본이 필리핀·괌·하와이에서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으며, 청의 독립과 영토보전 뿐아니라 만주 지역에서 상공업의 기회균등주의에 대한 지지를 담고 있었다.³⁵⁾

1908년 11월 光緒帝와 西太后가 3일 간격으로 사망하여 정세가 동요되자 일본은 이를 틈타 기민하게 대청교섭에 열을 올렸다. 간도영유권을 청에 넘겨주는 대가로 ‘법고문철도, 대석교연구철도의 철거, 신봉철도의 연장, 무순 및 연대탄광 및 안봉선, 그 외 철도연선평산’ 등의 이권을 획득하자는 계산이었다. 청의 완강한 태도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다가, 일본이 간도문제는 청의 영토적 주권 확보라는 것, 일본이 파출소를 설치한 것은 한인 보호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³⁶⁾

일본은 간도문제 처리의 가닥이 잡혀갈 무렵인 1909년 3월 30일 소위 ‘한국병합

32) 일본의무성 편, 『일본외교문서』 40권 2책, 일본국제연합협회, 1974, 94-95쪽.

33) 방침의 주요 내용은 1) 일본인과 조선인의 간도 잡거를 허용할 것 2) 그 외 주요 지점에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것 3) 조선인의 재판은 일본 영사관이 행할 것과 길장철도를 회령까지 연장할 것 등이었다.

34)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동아시아 근현대사』, 84-85쪽.

35) 이창훈, 「러일전쟁 후 동북아 신질서의 형성과 한국의 대응」, 92-93쪽.

36) 일본의무성, 『소춘외교사』, 원서방, 1980, 780-781쪽.

방침안’을 제출하고, 7월 6일 일본 각의에서는 ‘한국병합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 다음 날 일본왕의 재가를 얻어 확정지었다.³⁷⁾ 간도문제 역시 동년 8월 13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이처럼 간도문제는 한국병탄과 맞물려 처리되었다. 즉 한국을 병탄하는 과정에서, 1907년 당시 한국 영토라는 명분으로 침범했던 간도를 남만주지역 이권 쟁취의 대가로서 청에 넘겨주고 말았다.³⁸⁾ 간도문제의 처리는 곧 한국 병탄과 만주침략을 위한 정지작업이었던 것이다.³⁹⁾

이 무렵 미국은 달러를 앞세워 철도투자를 통한 만주진출을 재차 꾀하였다. 미국은 금주와 애훈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을 위해 청과 1909년 10월 금애철도부설차관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미국은 영국에 만주철도중립화안을 제의하고 나섰다. 러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철도를 영국미국일본러시아프랑스청의 6개국 공동관리로 두자는 것으로, 이는 만주에서의 러일 양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 철도는 일본의 만철과 병행하는 유력한 경쟁선으로서, 계획처럼 철도가 부설된다면 만철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청국정부에 대해 철도계획 만철병행선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하였고, 러시아도 보조를 맞추었다. 러일 양국은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1907년 제1차 러일협약에서 불안적 요소로 남아있던 부분들을 재차 협상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만주지역의 이권 분할을 놓고 공조체제를 유지해 갔다.

안중근이 망명한 이래 2년 여 동안 만주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러일의 각축, 거기에 미국과 영국 등의 서구 열강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그야말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혼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쇠락할 대로 쇠락해진 대한제국은 망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때 그는 의병을 일으켜 독립의 불씨를 피우려 했지만, 일본의 공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일제 침략이 만주지역으로 팽창하고 자력에 의한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주지역의 정세를 직시한 그는 “일본이 러시아 미국청국과 반드시 전쟁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국제정세의 역학관계를 활용하여 한국 독립의 방도를 찾고자 했다.

37) 中山治一, 「帝國主義政策の展開との國際關係再編成」 『日本外交史』1(信夫清三郎 編), 동경, 1974, 239-240쪽.

38) 7개조로 된 간도에 관한 청일조약의 주요 내용은, 도문강을 한청 양국의 국경으로 한다(1조). 청은 종래 대로 도문강 북쪽 개간지에서 한인의 거주를 승인하며(3조), 도문강 북쪽 잡거 구역내의 한인소유 토지, 가옥을 청국정부가 청국인과 동등하게 보호한다(5조) 등이었다.

39) 이성환,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대한정치학회보』 8집 1호, 2000년 여름, 263쪽

그의 정세 인식은 만주가 일본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면 그만큼 한국 독립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며, 한국 독립이 보전되기 위해서는 만주지역의 안정, 나아가 동양평화가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동양평화 차원에서 한국 독립의 이론을 정립하는 기반을 이루는 것이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고 괴뢰 만주국을 세우면서, 한국독립이 더욱 어려워졌던 상황을 안중근은 이미 20여 년 전에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동양평화론의 진실

안중근은 의거 결행 후 도망갈 생각이 없었느냐는 일본측 질문에, “義를 세우고 왜 도망해야 하는가. 나는 잡힌 뒤 재판장에서 이등박문의 죄상을 밝히는 기회를 얻어야 할 목적이 있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⁴⁰⁾고 밝혔다. 그만큼 이등박문의 처단은 정의의 기준에서 거행한 의거였다.

안중근은 1909년 11월 3일부터 1910년 3월 26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옥중에서 11회 신문을 받는 동안 미조부치 검찰관과 일제의 한국침략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박을 전개한다.

이때 미조부치를 앞세운 일본의 주요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독립할 능력이 없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점령되면 일본에게 매우 불리해지므로 청일·러일 전쟁을 일으킨 것이며, 청일·러일전쟁은 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 국제공법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보호’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다. 3) 한국의 진보를 위해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 4) 한국의 독립과 문명개화를 위한 일본의 조치가 한일협약이며 이는 합법적이다. 5) 한국의 독립과 문명개화를 가능케 한 이등박문을 죽인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6) 안중근 의거는 살인행위를 금하고 있는 천주교 교리를 위반한 것이다.⁴¹⁾

이에 대한 안중근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러일전쟁의 침략적 성격과 함께 강제한 을사늑약, 한국 황제 폐위 등 일제의 침략정책으로 한국인이 분개하고 있다. 2) 일본의 한국 ‘병합’ 야심을 열강이 좌시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으며, 이등박문이 한국을 병탄하려 하고 있다. 3) 일본이 위생·교통시설의 완비, 학교의 설립 등을 내세워 한국의 진보를 돕고 있다고 하나, 이는 일본을 위한 것이지 한국을 위해 진력한

40) 최서면, 「일본의 한국병합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21세기와 동양평화론』, 1996, 83쪽.

4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 1976, 170-284쪽.

것이 아니다. 명치 초년의 일본은 문명하지도 진보하지도 않았다. 4) 을사늑약은 일본 군대가 황제를 협박하여 강제로 체결한 것이다. 을사늑약은 “형제 동지간에 있어 한 편이 다른 한편을 먹이로 삼은 것”이다. 5) ‘이등박문죄상’ 15개조를 들면서, 한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파괴한 이등박문을 죽여 일본을 각성시키고 침략행위를 중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6)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 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더 큰 죄”이며, 이는 결코 교리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일제의 한국침략이야말로 인도주의에 반한 행위이다.⁴²⁾

이상에서 보듯이, 일본측이 내세운 논리는 명명백백히 진실을 호도한 침략의 궤변에 불과한 것이었다. 특히 이등박문을 오해했다는 부분은, 안중근을 ‘정치범’이 아닌 일반 ‘살인범’으로 몰아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궁색하게 꾸며낸 논리였다. 그렇지만 안중근은 이등박문의 죄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으며, 일제 침략의 화근이 결국에는 만주를 비롯하여 동양으로 확대될 것을 분명하게 설파하고 있었다. 안중근의 의지가 동양평화를 위한 길에서 결행된 것임은 안중근의 논리를 통해서도 뚜렷이 찾아질 수 있다.

당시 이등박문은 왜 만주를 찾았는가. 당시 서구 열강은 하얼빈에서 이등박문과 러시아 실력자 코코프체프의 만남을 커다란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1909년 청일신협약으로 악화된 러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얼빈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⁴³⁾ 일본 정계의 원로이자 대륙 침략의 선봉에 섰던 이등박문이 국민 자격으로 하얼빈을 찾은 것은 그 이상의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등박문이 하얼빈을 찾던 시점의 만주정세는, 미국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러일 양국의 공조체제가 더욱 절실하던 때였다. 일본은 남만주 지배를 위해 간도문제로 불거진 청과의 대립을 간도협약으로 진정시킨 직후였고, 한국에 대한 완전 ‘병합’을 목전에 두고 있던 때였다. 특히 러일 양국은 무엇보다 최종의 단계로서 만주 분할점령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었다.

섬나라 일본이 제국주의를 팽창시키기 위해 만주침략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숙원의 과제이자 목표였다. 일본은 1904년 테프트-카스라 밀약에 의해 오키나와, 대만 이남의 필리핀 지역으로 진로가 봉쇄된 상황에서, 한국과 대만 정도의 식민지 경영만으로 제국주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의 만주 침략

42) 위와 같음.

43)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동아시아 근현대사』, 85-86쪽.

은 한국 침략에 이은 필연의 과정이자 수순이었다. 그러한 일본 제국주의 팽창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등박문은 하얼빈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활로를 찾고자 하얼빈을 찾았던 이등박문은 그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대한국의 의병중장 안중근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앞서도 보았듯이, 안중근의 이등박문 처단은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 동양의 평화를 위해 거행한 의거였다. 그리고 한국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한 안중근의 사상과 이념은 오래전부터 구상되던 것이다. 안중근은 해외 망명 이래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의병투쟁이나 계몽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면서, 독립운동의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동양평화론’이다.

안중근이 구상한 ‘동양평화론’의⁴⁴⁾ 골간은 서양의 침략을 맞이하여 동양평화를 유지하려면 한국과 청국, 일본 등 삼국이 일치 단결해야 하며, 이들 삼국은 각기 독립을 유지한 가운데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내세운 동양평화의 범주에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태국, 미얀마까지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가 자주 독립을 유지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양평화를 유지하려면 이들 국가가 일치 단결하여 서양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러일 전쟁 직후 중국 산둥이나 상해 등지로 해외 망명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그는 당시 상해에서 르각신부로부터 알사스 로렌이 처했던 국경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내에서 교육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바 있었다. 알사스 로렌 출신이었던 르각은 “외세가 침략할 때 나라를 떠나 나라 안을 비우면 외적이 침입하기 더 쉬울뿐아니라,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충언을 해주었다. 안중근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 빌렘(홍석구) 신부와 후일 옥중생활 때 안중근을 도왔던 듀만(안세화) 주교도 모두 알사스 로렌 출신들이었다. 때문에 안중근은 알사스 로렌이 프랑스령에서 독일령으로 바뀌어진 과정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수난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알사스 로렌의 경험을 통해 강자와 침략자의 틈바구니에서 약자(대한제국)가 생존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자 노력하였고, 그의 동양평화론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남의 영토를 소유(침략)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강자와 논리와 달리 자신의 영토를 내놓으며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44) 동양평화론과 관련한 연구로는, 신용하, 「안중근의 사상과 의병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 김호일, 「구한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연구」 『중앙사론』 10·11합집, 1998; 최기영,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 일조각, 2003 ; 신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이등박문의 극동평화론」 『역사문화연구』 23,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5 등을 참조.

평화를 지향하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알사스 로렌 출신들이 열망하던 평화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얼빈을 찾기 위해 대련에 도착한 이등박문은 1909년 10월 21일 환영 만찬회 연설에서 극동평화(동양평화)를 주장한 바 있었다. 이때 이등박문의 논리는 동양이 불안한 것은 만주의 치안이 불안한 때문이고, 일제가 만주의 치안을 확보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도 안전해질 뿐아니라 교역이 활발해져 경제도 발달할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일제의 만주 점령이 곧 동양평화의 출발점이라는 침략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안중근 의거를 중국인들이 찬양했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동양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서양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당시 동양을 침략하는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독립과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지, 서양 그 자체를 배척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사실은 그의 천주교 세계관을 통해서도 확인될 뿐 아니라, 일본을 향하여 침략성을 버리고 동양평화에 동참하라는 주장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즉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동서양을 떠나 국가와 민족간의 전쟁과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자는데 그 기저를 두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결코 인종주의에 매몰되지 않았으며, 동양평화사상은 세계평화사상과 전혀 대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듯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국제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의 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높은 수준에서의 원리로서 동양평화의 방도를 제시한 것이었다.

그것은 패권주의의 제국주의 논리인 일본의 아시아연대주의와 명백한 차이를 갖는 것이었다. 아시아연대주의는 일제 침략 정책에 불과한 논리로 겉으로는 서구 열강의 침략을 당하여 동양 삼국이 연대하여 동양 평화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을 외치고 있으나, 여기에서 삼국의 연대는 평등한 관계의 연대가 아닌 상하의 관계로 설정된 것이었다. 즉 일제를 아시아의 지도자로 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설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시아연대주의의 또 하나의 본질은 일본 자체의 독립 보전책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이기적 정략의 소산인 아시아연대주의는 일본의 침략정책과 국가적 타산을 은폐하는 수단에 다름아닌 것이었다. 따라서 삼국의 독립을 전제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향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는 그 출발부터가 다른 것이었다.⁴⁵⁾

그렇지만 안중근의 동양평화의 구도는 대체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한 바탕위에서

45) 장석홍, 「안중근의 대일본의식과 하얼빈의거」, 『교회사연구』 16, 2001 참조.

한국과 청국이 정립하여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동양 삼국의 동등한 자격을 논의하면서도, 현실적 차원에서 일본의 주도를 인정하고 있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매우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이같이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지 않는 실질적 사상성을 띠고 있었다.

그의 동양평화에 대한 구상은 나아가 여순항을 개방하여 삼국이 공동 관할할 것과 또 삼국 대표에 의한 평화회의 기구를 조직함으로써 동양평화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주장했으며, 공동 출자에 의한 재정 확보의 방안과 삼국의 청년들로 구성된 군단 구성 등 경제, 군사 방면에까지 이르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삼국의 황제들이 로마 교황에 의한 대관식을 갖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천주교적 세계관도 포함되어 있었다.⁴⁶⁾

그러나 동양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침략성을 막아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침략의 원흉인 안중근 의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양평화의 출발이 되는 것이었다. 안중근이 법정에서 ‘일본국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등을 처단했다’는⁴⁷⁾ 주장은, 바로 그같은 동양평화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즉 이등박문은 동양평화의 기초를 이루는 삼국의 독립을 해쳐 동양평화를 파괴하는 자이므로 처단한 것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본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보전하는 길이었다는 것이다. 안중근의 그런 사상은 제국주의적 관점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인도주의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4. 안중근 의거의 역사성

안중근 의거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대의거였다. 그렇지만 의거 당시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중근 의거를 숭앙하기 보다는 ‘흉행’으로 치부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나라를 망하게 한 흉한’, ‘동양평화의 파괴자’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물론 해외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세력은 안중근 의거를 찬양하고 기뻐했지만,⁴⁸⁾ 그것은 한국 민족 전체로 볼 때 일부에 불과한 것이었다.

반면에 이등박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각국이 애도의

46) 최기영, 앞의 논문, 467-468쪽.

47) 국사편찬위원회 편, 「公判始末書 第五回 被告人安應七이라 하는 安重根 外 三名」 『한국독립운동사』 자료6, 395~396쪽.

48) 한상권, 「안중근 의거에 대한 미주 한인의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3, 2005 ; 김춘선,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3, 2005 참조.

뜻을 표하는 가운데, 그를 동양평화의 주창자, 전도사로 치켜세웠다. 한국에서도 황실과 대한제국 정부가 앞장 서 이등박문을 ‘한국의 은인’, ‘동양평화의 선도자, 수호자’로 추앙하는 사태가 연출되었다. 그리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의 각 학교, 상점, 시장, 연예장 등에 휴업명령을 내려 이등박문의 죽음을 추모하도록 하였다.⁴⁹⁾ 11월 8일 장충단에서 열린 이등박문 추도회는 황실·정부·민간 등 각계에서 참가한 가운데 1만여 명의 군중이 모였고, 그 중에는 5천여 명의 학생도 동원되었다. 사회 각층에서도 이등박문 추모의 물결이 넘쳐 흘렀다. 대한협회나 일진회같은 사회단체들은 弔辭를 전달하는 한편 이등박문의 유족에게 弔電을 보내는 등 앞다투어 이등박문 추모 행사를 벌여 나갔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거가 한국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한편 이등박문의 ‘송덕비’를 건립하거나 ‘국민사죄단’을 구성하는 등 망국적 망발이 여기저기서 자행되었다.⁵⁰⁾ 이들은 한국이 일본을 배척하여 임진왜란을사늑약정미칠조약같은 화를 자초하게 됐다면서, 한국의 독립과 개명진보는 일본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듯 당시 일반의 세평은, 역사적 평가와는 너무나 극단의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역사의 진실이 호도된 채 망발과 망언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것이, 의거 당시 외면할 수 없는 한국의 서글픈 현실이었다.

이러한 때 안중근은 법정에서 이등박문의 죄과를 지적하면서 외롭게 의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역사의 진실 앞에서 ‘훗날 안중근의 날이 올 것’을 예견하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다가 순국을 맞이하였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안중근의 높은 뜻을 외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깊이를 더해가고 더욱 찬연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은인’ ‘동양평화의 수호자’로 떠받들여졌던 이등박문의 역사적 망상과 허상은 일제의 패망·제국주의 청산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동양평화의 파괴자’,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화신’으로 되돌아갔다.

안중근은 일제가 기만 선전한 ‘동양평화’와 달리 진정으로 동양평화를 추구한 ‘동양의 의사’였다. 그는 한국만의 의사가 아니라, 중국의 의사로도 이름을 높이고, 양심있는 일본인에게도 추앙받기에 이르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일제의 영웅’ 이등박문을 처단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동양평화의 수호자로서 얻어진 것이었다.

49)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7, 16쪽.

50) 신운용, 「안중근 의거에 대한 국내의 인식과 반응」 『한국근현대사연구』 33, 2005 참조.

5. 맺음말

안중근 의사는 만주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갈파하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한국 독립의 보전과 동양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등박문을 처단하였다. 안중근 의거는 이등박문 처단에 그치지 않고 옥중투쟁을 통해 의거의 본질이 동양평화라는 원대한 구도에 있음을 천명하면서 가치를 더욱 발휘했다.

한국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한 안중근의 사상과 이념은 해외 망명 이래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의병투쟁이나 계몽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면서, 독립운동의 철학을 정립한 것으로 ‘동양평화론’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동양평화론은 인종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채 세계평화사상과 연결되고 있었다.

때문에 안중근은 한국의 의사만이 아닌 동양과 세계의 의사였다. 안중근의 의거는 당사자인 우리 민족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절실하게 바라던 쾌거였다. 중국은 청일전쟁 패배의 댓가로 일제에게 영토를 분할하는 등 굴욕적 수모를 당한바 있는데다가, 러일전쟁 당시에는 청의 발상지인 만주가 전쟁터로 화하게 되자 중국인들의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이등박문이 러시아와 야합하여 만주를 분할 점령하려는 야욕 아래 하얼빈에 오기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럴 때 안중근의 의거가 터진 것이었다.

안중근 의거는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나아가 일본을 위한 의거였다. 오늘날 일본, 중국에서도 안중근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외롭게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며 동양평화를 추구했던 안중근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자 진정한 평화주의자였다.

일본과 동아시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남상구

일본과 동아시아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⁵¹⁾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일본의 수출과 수입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접어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적 교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 일본 방사능 유출에 대한 대처 등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표1〉 일본의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수출입 통계

		1985년		2000년		2009년	
		단위:10억엔	비율	단위:10억엔	비율	단위:10억엔	비율
수출	총액	41,956	100%	51,654	100%	54,171	100%
	아시아	13,658	33%	22,319	43%	31,391	58%
	중국(홍콩포함)	5,761	14%	10,078	20%	16,610	31%
	한국	1,694	4%	3,309	6%	4,410	8%
수입	총액	31,085	100%	40,938	100%	51,499	100%
	아시아	15,907	51%	22,392	55%	31,683	62%
	중국(홍콩포함)	2,546	8%	8,051	20%	13,250	26%
	한국	977	3%	2,205	5%	2,051	4%

그러나 한편으로는 센카구열도와 독도를 둘러싼 중일, 한일 간의 대립과 고이즈미

51) 본고는 기존에 발표한 논문과 강의 내용을 ‘일본과 동아시아의 관계’ 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2001년~2006년)로 인한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로 인한 일본과 주변 국가들 간의 갈등이 2000년대 이후 주요 외교 현안으로 등장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침략전쟁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과 전후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동아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에게 있어 ‘패전’은 무엇이었는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특징으로 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들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메이지유신 이후 형성된 아시아에 대한 멸시의식, 탈제국주의화의 특수성, ‘관대한 전후처리’와 전후처리과정에서 아시아가 배제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장에서는 중국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의 패전 직후 아시아 여러 나라와 침략전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에게 ‘패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패전 당시 일본의 점령지나 식민지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의 아시아 국가들과 침략전쟁에 대한 인식은 미국 국무성 조사분석국이 ‘북경 일본인의 정치의식조사<부록 B>1946.4.30 (이하 「조사」)」에서 “이러한 귀국자 등은 그들의 해외 체험에서 나오는 태도와 신념을 일본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중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그들의 이야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훈에 권위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전후(戰後) 일본의 침략전쟁과 아시아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먼저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중학교 졸업이상이 전체의 83%, 고등학교나 전문학교 졸업이상이 42%로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다. 그리고 중국 체류기간은 4년이하가 40%, 4년 이상 8년이하가 52%, 8년이상 8%이다. 연령은 26세에서 45세까지가 66%를 차지하고,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43%였다.

〈침략전쟁에 대한 인식〉

침략전쟁에 대한 인식		대답			예측
		예	아니오	회답없음	
13	베르사이유 조약은 정당하다	34	50	16	분 - *
38	1941년 봄부터 여름에 걸친 영미 양국의 경제압력으로 일본은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64	27	9	일 - ○
104	극동에서의 개전은 일본의 책임이다.	46	43	2	확 - ○
111	진주만 공격은 일본측의 배신행위이다.	40	48	12	분 - *
129	미국은 전쟁을 이유로 일본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72	15	13	확 - ○
43	남방지역에 쌓아올린 빛나는 성공은 전쟁의 종결에 의해 처음으로 좌절되었다.	69	26	9	일 - ○
98	중국 국민이 일본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했다면 일본군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61	30	9	일 - *
15	중국인 자신이 중국을 지배했었고, 일본인은 단지 원조하려했던 것으로 어떤 행정기구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64	27	9	일 - ○
134	중국 주민에 대한 일본의 잔학행위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진실이다.	14	67	19	확 - *

(주) 번호 : 질문표 항목 번호

예측 : 거류민회 간부 6인이 실시한 일본인 의견에 대한 예측

○ : 예측 성공, * : 예측 실패,

분 : 의견 나누어짐(예와 아니오의 차이가 16% 이하)

일 : 의견일치 (17-40%)

확 : 확실히 의견일치 (41-66%)

압 : 압도적 의견일치 (67%이상)

거류민회 간부의 의견이 확실히 일치하는 것은 1941년의 개전이 자위전쟁이었다는 점(38, 129)과 중국인에 대한 잔학행위 부정(134)이다. 그리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일본의 전쟁 의도는 침략에 있지 않다는 점과 이것을 중국인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43, 15, 98)이다.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은 개전 책임(13, 111)인데,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국에서 전쟁을 체험한

이들이 중국에 대한 침략책임과 잔학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따른 잔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45년 9월 17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저지른 잔혹행위가 보도되었다. 이 보도에 대해 군인 출신은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부녀자들은 무지와 동포애에 기초하여 일본군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였다.

〈점령지와 식민지에 대한 인식〉

중국과 식민지에 대한 인식		대답			예측
		예	아니 오	회답 없음	
73	미국의 원조가 없어도 중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8	87	5	압- ○
46	만주의 중국인은 일본인이 만든 산업조직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	69	6	20	확- ○
130	중국의 행정관들은 대만을 망칠 것이다.	65	23	12	확- ○
81	중국은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 결합이 없는 다양한 인간의 집합체이다.	50	39	11	분- *
66	50년 이내에 중국은 일본과 동등하게 강하게 되어 세계를 지도할 것이다.	36	51	13	일- *
70	조선은 적어도 20년간 독립할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할 것이다.	77	14	9	확- ○
94	대만을 중국에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	60	29	11	확- ○
132	일본의 존속을 위해 만주 병합은 필요하다.	45	42	13	분- ○
135	일본의 존속을 위해서는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경제 권익이 필요하다.	72	17	11	확- ○
142	전쟁에 졌다고 만주에 대한 투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7	37	16	분- ○

패전과 ‘대일본제국의 붕괴’라는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아시아에 대한 우월의식과 멸시의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사」 결과에도 이러한 인식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먼저 일본은 전쟁에 졌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패한 것으로, 중국에 패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데(73), 중국

(인)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46, 130, 81, 66)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70). 또한 만주에 대한 강한 집착과 중국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 이권에 대한 강조는 “만주는 일본의 생명선이다”는 전전(前戰) 일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 이 시점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인의 아시아에 대한 우월감〉

일본인의 자기인식		대답			예측
		예	아니 오	회답 없음	
10	일본 국민은 다른 극동의 국민보다 뛰어나다.	86	9	5	압-○
18	일본 민족은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다.	41	49	10	분-*
53	남방지역의 현지인은 일본인을 아주 좋게 생각한다.	63	13	24	확-○
62	남방지역의 현지인은 서구의 지배자보다 일본인을 좋아 한다.	50	23	27	일-*
71	만주인은 중국인을 증오한다.	45	39	16	분-*
89	만주인은 일본인을 증오하고 있다.	15	69	16	확-*
74	중국 국민은 일본 국민을 좋아한다.	54	35	11	일-*
141	대만인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의 일부가 되길 희망한다.	66	12	22	확-○

메이지 이후 일본은 ‘탈아입구’를 목표로 했었고, 자신들만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시각에서 아시아를 바라보았다. 「조사」에도 일본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은 보이지만 구미와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10, 18).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와 일본이 침략한 국가에서도 일본(인)이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53, 62, 74, 141).

1982년 10월 23일, NHK의 「일본인의 평화관」에 대한 조사를 보아도 “아시아 사람들로 부터 비판과 경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에 많고, 거꾸로 아시아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거나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령층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러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인의 우월의식은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 아시아로

의 경제 ‘진출’ 을 매개로 하여 더욱 강화된다. 일본의 무역회사 직원의 아래와 같은 이야기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적으로는 역사 왜곡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민간 비즈니스에서는 이 문제로 일본과 경제 단교라는 일이 일어나면 곤란한 것은 자신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제 기계와 원재료 수입이 멈추면 그들의 경제는 근거로부터 무너지게 되니,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등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 교과서 문제를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매스컴이 요란스럽게 보도하듯이 현지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정치가들에게도 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조선에 대한 예전의 통치에 대해 일본이 사죄하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일본은 분명히 조선을 지배했다. 그러나 일본은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해, 조선을 보다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 조선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고 한다. 이것이 조선이 일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년 정도만 더 일본과 붙어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高杉普一 제7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5.1.7 회담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나는 예전에 일본과 한국반도가 병합시대가 오랜 기간 존재했지만, 그 후 한국과 그 밖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긴 합병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민족의 마음에 새겨진 것, 일본으로부터 김 재배 기술을 가져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일본의 교육제도, 특히 의무교육제도는 지금도 지켜나가는 훌륭한 것으로 역시 경제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 정말로 생활 가운데 뿌리내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ASEAN 5개국을 방문하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田中角榮 총리, 1974.1.24 중의원 본회의 발언)

3.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인식

일본정부는 2005년 8월 12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전후처리’를 했다는 주장을 담은 ‘역사문제 Q&A’를 게재했다.⁵²⁾ 외무성은 ‘역사문제 Q&A’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목적에 대해 ‘전후 60년을 맞이하여 역사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우리정부의 입장을 정리,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⁵³⁾ 그러나 ‘역사문제 Q&A’의 영문판이 2006년 1월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도 한국어로 번역되어 게재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적이 외국인에게 일본정부가 실시한 ‘전후처리’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문제 Q&A’는 현재도 자료가 보완되고 있다.

‘역사문제 Q&A’를 토대로 일본정부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는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 나아가 불행한 과거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1995년 8월 15일의 내각총리대신 담화를 비롯하여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명확히 표명해 왔습니다.”라고 반박한다.⁵⁴⁾ 일본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내세워 일본

52)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歴史問題Q&A’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qa/>)

- 문1. 지난 전쟁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떠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가?
- 문2. 일본은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아시아 제국에 대해 공식적인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 문3.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배상했는가?
- 문4. 정부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 해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 문5.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문6.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 입장
- 문7.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 문8.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외국으로부터의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문9. ‘난징(南京)대학살’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문10.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문11. 독일과 비교해서 일본은 과거문제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가?

53)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언론보도자료’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17/rls_0812a.html)

54) 한국 언론에서는 ‘お詫びの気持ち’를 사죄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정부가 한국사회가 환영할 ‘謝罪’라는 단어 대신에 ‘お詫びの気持ち’를 선택한 것은 일본 국내정서를 반영한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주한 일본대사관에 게재된 한국어 번역본에는 ‘お詫びの気持ち’가 ‘사죄’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해 사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는 식민지 지배 자체는 ‘합법적’ 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반성을 표명한 일본 정부의 관료는 시이나 에츠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이었다. 1965년 1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시이나 외상은 “양국 간의 긴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깊이 반성한다”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이나 외상은 1965년 2월 2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도 자신의 발언이 아래와 같이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에 대해 반성을 표명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일한 사이에 과거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장래의 일한우호친선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하는 결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더 말씀드리자면 한 민족이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타 민족을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지배당한 민족의 민족감정이라는 점에서 보아도, 또는 국제정치의 관점에서든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55)

시이나 외상의 발언에 대해 이원덕은 36년간의 식민통치를 원천적으로 불법, 부당한 것으로 보는 한국측의 인식과 그것을 적법하고 합당한 것으로 보는 일본측의 인식이 외교협상을 통해 근접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이 성명서도 한국 정부가 대일 감정을 일시적으로 억누르고 기본조약을 조인하기 위해 막후에서 노력한 결과였다고 지적한다.⁵⁶⁾ 시이나 외상이 1961년 “일본이 메이지 이후 강대한 서구 제국주의 이빨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고 일본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을 운영하고 조선을 병합하고 만주의 오족화해의 꿈을 꾀한 것이 일본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의 제국주의이다”⁵⁷⁾고 발언한 것을 상기하면 그의 발언이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시이나 외상의 성명서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55) 48회 - 중의원 - 외무위원회 - 2호 - 1965.2.24

56) 이원덕, 2005, 「한일회담에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韓國史研究 131』), 125쪽

57) 椎名悦三郎, 1963, 『童話と政治』, 東洋政治經濟研究所

이것은 한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이 정도의 역사인식은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은 1982년 8월 26일 담화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은 과거 우리나라의 행위가 한국·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을 깊이 자각하고 이러한 일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결의를 바탕으로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나라는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의 일한공동선언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으로 깊이 반성한다’는 인식을, 중국에 대해서는 일중공동성명에서 ‘과거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서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라는 인식을 밝혔는데, 이것도 앞서 기술한 우리나라의 반성과 결의를 확인한 것으로서 현재도 이러한 인식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⁵⁸⁾

담화는 1965년 한일공동선언과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반성을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 후,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표명의 빈도가 늘어난다. 1984년 9월 7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총리는 전두환 대통령 방일 환영 오찬 연설에서 “귀국 및 귀국 국민에 다대한 고난을 안겨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간직함과 동시에”⁵⁹⁾라고 발언했다. 나카소네 총리는 1985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시에도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사실을 깊이 반성” 한다고 표명했다.

1989년 3월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총리는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성과 사죄(유감)를 표한다고 답변했다.

58) ‘역사교과서에 관한 담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

59) 田原総一郎, 2000, 『教科書問題での記者会見-日本の戦争』(小学館,) 161쪽.

“이미 누차의 기회에서 명백하게 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은 과거 우리나라의 행위가 근린제국의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입힌 점을 깊이 자각하고 (중략) 이러한 자각과 반성은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조선반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히 명기(銘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과거의 관계에 대해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자 합니다.”⁶⁰⁾

일본정부는 한일 및 한중 외교에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1994년 6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사회당 내각이 발족한 것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총리담화를 추진한다. 무라야마 총리 담화 발표의 경위를 보면 먼저, 무라야마 내각 발족 당시 자민·사회·사키가케 3당은 ‘전후 50년을 계기로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미래의 평화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는 국회결의 채택 등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1995년 6월 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역사를 교훈삼아 평화 결의(決意)를 새로이 하는 결의(決議)’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제1야당이 결석하고 연립여당에서도 결석자가 속출하여 찬성자는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230명에 그쳤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해 “또 세계 근대사에 있었던 많은 식민지지배와 침략적 행위를 상기하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했던 이런 행위와 타국민,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민에게 안겨준 고통을 인식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⁶¹⁾고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를 명기하면서 반성을 표명했다.

1995년 8월 15일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아래와 같이 담화를 발표하여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

60) 114호 - 중의원 - 예산위원회 - 9호 - 1989.3.30

61)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

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무라야마 총리는 1989년 3월에도 북일 국교정상화 문제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 문제와 연계시켜 아래와 같이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일본과 조선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점은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속죄입니다. 일본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하고 나서 4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화국과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민족에 대해 한 마디 사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 양국 정부는 현재도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있습니다.”⁶²⁾

무라야마 담화는 총리관저가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핫토리 류지(服部龍二)의 연구를 통해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이 무라야마 담화 작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⁶³⁾ 종합외교정책국은 한국, 중국, 미국, 영국을 특히 염두에 두고 향후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동 담화를 답습한다는 차원에서 수습하겠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담화를 추진했다. 이들 4개국에 대해서는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총리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했다. 일본정부는 담화를 통해 포괄적인 반성과 사죄는 표명하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배상,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모두 해결되었고 정부가 개인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⁶⁴⁾ 그리고 일본정부가 해결해야 할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대만 주민에 대한 미불급여와 군사우편저금 사할린 한국인 영주 귀국, 중국에 남겨진 일본군 화학병기 4가지로 한정하였다.⁶⁵⁾

무라야마 담화 발표 이후, 일본의 총리들은 무라야마 담화를 원용하거나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사인식을 표명했다. 2005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고이즈미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한 ‘고이즈미 담화’를 발표, 참배로

62) 114호 - 중의원 - 예산위원회 - 9호 - 1899.3.30

63) 服部龍二, 2007, 「村山談話と外務省一戦後50周年の外交」(田中努編『日本論：グローバル化する日本』, 中央大学出版部)

64) 앞의 책.

65) 앞의 책.

인한 파장을 축소시키려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매과 총리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 2006년 10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내각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답습한다고 표명했다.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발표한 ‘한일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도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며, ‘한국’이라고 특정하기는 했지만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하는 형태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⁶⁶⁾ 이러한 점에서 무라야마 담화는 외무성의 전략적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 총리의 사례에 보이듯이, 무라야마 담화와는 상충되는 행동과 발언을 하면서도 무라야마 담화를 기계적으로 인용한 결과, 일본정부의 반성과 사죄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인식되고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조차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차원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1988년에 만들어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규정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동 법률의 목적을 보면, ①전시 중의 일본계 미국 시민과 영주 외국인에 대한 퇴거, 이주, 수용의 근원적 부정을 인식하고 ②이러한 부정에 대해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③공공기금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똑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④수용되었던 일본계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⑤이를 통해 타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미국의 우려 표명을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죄를 표명한 것으로, 상기 법률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하는 형태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도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010년 8월 10일 총리담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정치 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기하고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이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했다.⁶⁷⁾ 간 총리의 담화는 무라야마

66) 한일공동선언의 문구는 2002.9.117 ‘평양선언’에서도 ‘한국’이 ‘조선’으로만 바뀐 채 그대로 인용된다.

67) 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

담화를 계승하면서도 기존의 총리 발언과는 달리, 자신의 언어로 역사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미흡하지만 유골반환, 사할린 한국인 지원, 조선왕실의궤 인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간 총리담화는 한국 병합은 부당하나 합법이라는 일본정부의 기존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이를 위한 자료공개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제출해온 국회도서관에 영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하여 ‘강제동원’ 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피해의 실상을 조사하자는 법률안과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사죄와 명예회복조치(금전지급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의해결촉진에관한법률안’ 의 성립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률의 성립 여부가 일본정부에 의한 사죄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4. 일본정부의 전후처리

일본의 전후 배상과 ‘보상’ 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개별 평화조약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개요는 <표2>와 같다.

<표2> 일본의 전후 배상과 보상 개요⁶⁸⁾

국가명	식민지 종주국	전후의 동향	대일 강화 조약	국교회복	배상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조인	강화조약에 의해 국교 회복	대일배상청구권 포기, 일본은 조약 당사국에 일본 해외 재산의 처분권 인정, 일본은 적십자 국제위원회에 연합국 포로에 대한 보상으로 영국 화폐로 환산한 450만 파운드 지불
한국	일본	45.8.15 독립 48.8.15 대한민국 수립	초청받지 못함	65.6.22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및경제협력협정 조인	10년간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제공, 민간차관 3억달러 제공
중국		49.10.1 중화인민 공화국 수립	초청받지 못함	72.9.29 일중공동성명	대일배상청구권 포기

68) 핸드ブック戦後補償編集委員会, 1992, 『ハンドブック戦後補償』(梨の木舎)부록 38-39쪽을 토대로 작성

				조인	
소련		52.4.28 일본, 남사할린, 치시마제도의 권리, 청구권 포기	조인거부	56.10.19 일소공동선언 조인	대일배상청구권 포기
북한	일본	45.8.15 독립 48.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초청받지 못함	국교 미수립	일조국교정상화 교섭의 과제
대만	일본		초청받지 못함	52.4.28 일화평화조약 조인(-72.9.29) 72.9.29 국교 단절	대일배상청구권 포기, 일본 군수시설 2000만달러 분 수령
베트남	프랑스	45.9.2 베트남민주공화국 독립선언 45.9.23 프랑스, 식민지주권의 부활을 선언 46.12.19 프랑스와 전쟁 개시 54.7 프랑스와 휴전 협정 조인	조인 (남베트남 정부)	59.5.13 배상, 엔차관협정 조인 (남베트남) (60.1.2 발효)	5년간 3900만달러 배상, 3년간 750만 달러 차관, 협정발효 5년후부터 910만달러 장기 대여
라오스	프랑스	49.7.19 라오스왕국 독립 (프랑스연합 내) 54.7.21 쥬네브 협정 조인, 프랑스 철퇴	조인	58.10.15 경제기술협력협정 조인 (60.1.12 발효)	56.12.16 대일배상청구권 포기 2년간 300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 제공
캄보디아	프랑스	53.11.9 캄보디아왕국 독립	조인	59.3.2 경제기술협력협정조인(7.6 발효)	54.11.27 대일배상청구권 포기 3년간 450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 제공
타이		45.8.16 42년의 미·영에 대한 선전포고 무효 선언		55.7.9 특별엔협정 조인(8.9 발효) 62.1.31 특별엔신협정 조인(5.9 발효)	5년간 54억엔 지불, 2800만달러 경제협력, 8년간 96억엔의 자본재, 역무 제공
버마	영국	48.1.4 미얀마연방 독립	참가거부	54.11.5 평화조약, 배상, 경제협력협정 조인 (55.4.16 발효) 63.3.29 재협정	10년간 2억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제공, 500만달러 경제협력, 무상 1억 4000달러를 12년간 무상원조
말레이시아	영국	49.2.1 영국, 마라야연방 발족 57.8.31 마라야연방 독립 63.9.16		67.9.21 일본과 말레이시아간의 협정(현재 협정) 조인(68.5.7 발효)	약 1700만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 제공 협의

		말레이시아 발족			
싱가포르	영국	65.8.9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싱가포르공화국 독립		67.9.21 일본국과 싱가포르공화국과 정(혈재협정)조인	협 1700만달러의 무상차관 제공
필리핀	미국	45.8.7 호세 라우엘, 필리핀 '독립' 정부해체를 선언 46.7.4 필리핀공화국 독립	조인	56.5.9 배상협정, 경제개발차관공문인(7.23 발효)	조 20년간 5억 5000만달러의 역무와 자본재 제공, 차관 2억 5000만달러 제공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45.8.17 인도네시아공화국 독립선언 49.12.27 네덜란드, 주권 이양	조인 하나 비준하지 않음	58.1.20 평화조약·배상협정 조인(4.15 발효)	12년간 2억 2308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제공, 20년간 4억달러 차관 제공

일본의 전쟁 배상과 ‘보상’은 냉전을 배경으로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미국은 점령 초기에는 준엄한 대일배상정책을 취했다. 1946년 11월 공표된 풀리 사절단의 대일배상 최종보고서는 일본 국민이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공업시설을 철거하여 아시아 국가의 경제부흥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⁶⁹⁾ 그러나 냉전이 진행되고 일본이 미국의 안보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의 경제부흥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게 된다. 일본의 전쟁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1.9.8 조인, 1952.4.28 발효)을 통해 처리되었는데, 그 특징으로 ‘관대한 강화’라는 점과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징벌적 성격의 거액배상이 아니라 일본이 지불 가능한 금액의 배상을 요구했고⁷⁰⁾, ②현금배상 대신 설비철거에 의한 실물배상이나 역무배상을 기본으로 했으며, ③승전국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일본과의 교섭을 통해 배상액과 내용을 결정하는 등, 제1차 대전 후의 독일에 대한 배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⁷¹⁾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는 일본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중국과 한국은 참석하지 못했으며, 동남아시아 각국은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인 패권을 확립한 미국의 냉전정책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⁷²⁾ 강화조약과 양국 간의 협약에 의해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배상과 청구권 문제

69) 吉田裕, 1995,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70쪽.

70)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14조[배상 및 재외 재산의 처리](a) 일본국은 전쟁중에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해야함을 승인한다. 그러나 또한 존립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원은 일본국이 모든 前記의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완전한 배상을 행하고 또한 동시에 다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충분치 않다는 것을 승인한다.

71) 吉田裕, 앞의 책, 70쪽.

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정부는 국가 간 협약에 의해 개인청구권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일회담 당시 논의된 군인·군속과 노동자의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논의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 문제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⁷³⁾ 중국정부도 1972년 일중공동선언에 의해 개인청구권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일본 사법부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있다.⁷⁴⁾

한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2010년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피해자의 개인보상 청구권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며 정부차원에서 개인보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⁷⁵⁾ 이 발언에 대해 한국 언론은 마치 모든 식민지 피해와 관련된 개인보상문제를 일본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센고쿠 관방장관이 언급한 개인보상이란 재한 원폭피해자, 피징용자 유골 반환, 사할린 한국인 문제 등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문제들만을 포함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의 경우도 시베리아 억류자가 일본정부가 소련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정

72) 인도네시아의 경우 스바르조 외상이 1951.9.15 요시다 시게루 총리와 면담 배상에 대한 확약을 얻어 조약에 조인했으나 비준을 얻지 못하고, 배상문제는 일본과의 개별교섭으로 넘어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로 참가한 당시 스바르조 외상은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일본 점령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청구했다.

“우리정부는 배상의 무거운 짐을 일본인의 양 어깨에 부과하여 일본 및 일본국민에게 부당한 곤란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도네시아 정부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점령기간 중의 일본국민 및 그 행동에 기초한 광범한 우리들의 현재의 여러 곤란, 결핍 및 제2차세계대전후의 재건 및 부흥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일본인에 의한 점령기간 중 인도네시아가 입은 손해는 이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교섭 당초에는 희생자 400만명, 피해액 175억 달러로 추계되는 배상을 자본재, 서비스(역무)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는 일본의 GNP에 필적할 만한 액수로 이는 강화조약 14조 위반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당초 요구액의 1/80 수준인 2억 2308만 달러와 20년간 4억 달러의 유상자금 협력 등을 포함하여 총액 약 8억 94687만 달러를 제공받는 것으로 평화조약 및 배상협정에 조인했다.

73) 한국정부는 1975년부터 2년간 국내 거주 피징용 사망자 유족에게 1인당 30만원씩(8,552명)을 지급했고,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0. 3.22)에 의해 강제동원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2천만원)과 미수금 지원금(1엔을 2000원으로 환산), 본인에게 위로금(부상자의 경우,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의료지원금(연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74) 2007.4 일본 대법원은 니시마츠건설 중국인 노동자 강제동원 소송에서 ‘중일공동성명으로 중국 국민은 배상청구권을 상실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보도관은 2007.4.27 중일공동성명에 대한 일본 대법원의 해석은 위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75) 『産経新聞』(인터넷판) 2010.7.7

부가 포기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자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라며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정부의 주장은 자국 전쟁피해자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 사법부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개인이 상대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02년 3월 28일 도쿄고등법원은 '강제징병·징용 배상소송' (강원도소송) 항소심에서 '국제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도쿄고등법원도 2005년 4월 19일 '731부대·난징학살·무차별폭격 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제법상, 전쟁의 피해자 개인이 외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는 없으며, '인도주의를 내세워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패전국과 그 국민에게 부담을 부가하는 것으로 전후처리에 혼란과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는 논리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동 소송의 1심 판결(1999.9.22)도 '전쟁피해에 대한 개인차원의 정의를 관철시키는 것이 오히려 분쟁의 불씨를 영원히 남김으로써 또 다시 전쟁상태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며, 보상은 전후 국가 간 평화우호조약 등에 의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입은 전쟁피해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사법부의 주장은 시베리아 일본인 억류자의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과 모순된다.

한편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는 식민지가 독립한 이후에도 식민지 출신자를 내외국 인평등주의원칙에 따라 자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였으나⁷⁶⁾, 일본은 식민지 출신 군인·군속 피해자의 경우는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배제하였다. 배제의 이유는 식민지 출신자의 보상 문제는 양국 간 협약에 의해 해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한국 출신 일본인 군인·군속의 보상 문제는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정부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던 그것은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일본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식민지 출신자의 보상 문제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이라는 시점은 철저하게 배제한 채, 양국 간의 교섭에 의해 해결해야 할 외교적 과제로서만 취급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한일협정 서명(1965.6.22) 이전에 귀화한 한국 출신자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등하게 보상을 실시했

76) 奥原敏雄, 1992 '「欧米諸国における戦争犠牲者の補償制度」, 『法学セミナー(1992,8)』52쪽.

으나 서명 이후에는 귀화하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 영주하는 재일 한국인과 대만인이 국적조항에 의해 보상에서 배제된 문제에 대해 규약인권위원회는 자유권 국제규약(1979년 조약 7호, 이른바 B규약)에 근거하여 ‘구 일본군에 종군한 한국·조선 및 대만 출신자로 더 이상 일본 국적을 소유하지 않는 자가 연금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며 그 해결을 요구했다.⁷⁷⁾

2001년에는 ‘평화조약국적이탈자의전물자유족등조의금등지급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일본에 영주하는 한국인, 조선인, 대만인에게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동일한 입장의 일본인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액수에 불과했다.

5. 맺음말

일본 외무성의 ‘역사문제 Q&A’를 보면, 일본정부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고 배상·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일본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먼저 일본정부의 반복되는 사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죄가 국제관계를 배려한 정치적인 수사로 끝나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후세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에서 채택된 것도 일본식의 사죄가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피해 당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사죄가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지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실태 특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정부기관이 보유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난 3월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라는 기로에 서 있다.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특히 방사능 피폭이라는 위험을 무릅쓴 후쿠시마 원전 복구 작업을 계기로 ‘일본을 위해 목숨을 걸고’라는 식의 ‘

77) 田中宏, 2003, 「林水木国家補償請求事件についての意見書」, 『龍谷大学経済学論集(民際学特集) 42(5)』, 31쪽.

일본' 을 강조하는 언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웃 나라들이 보내 준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국제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언설도 늘어나고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일본의 몫이지만, 그 기준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일 것이다.

세계화시대의 한·중 관계

° 오병수

세계화 시대의 한·중 관계

오병수(동북아역사재단)

※ 강의 자료는 강의 당일에 배포(예정)